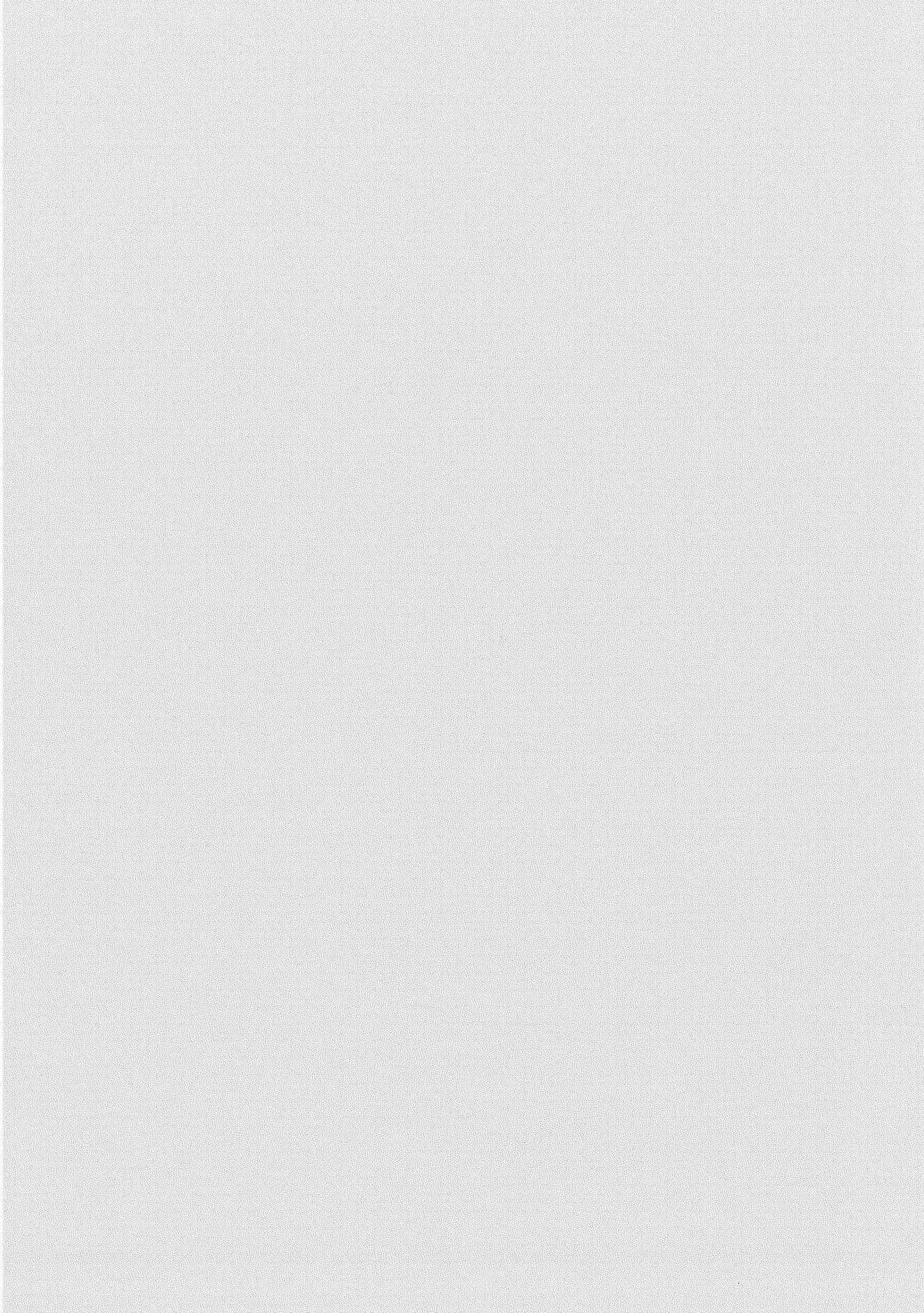


第137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2. 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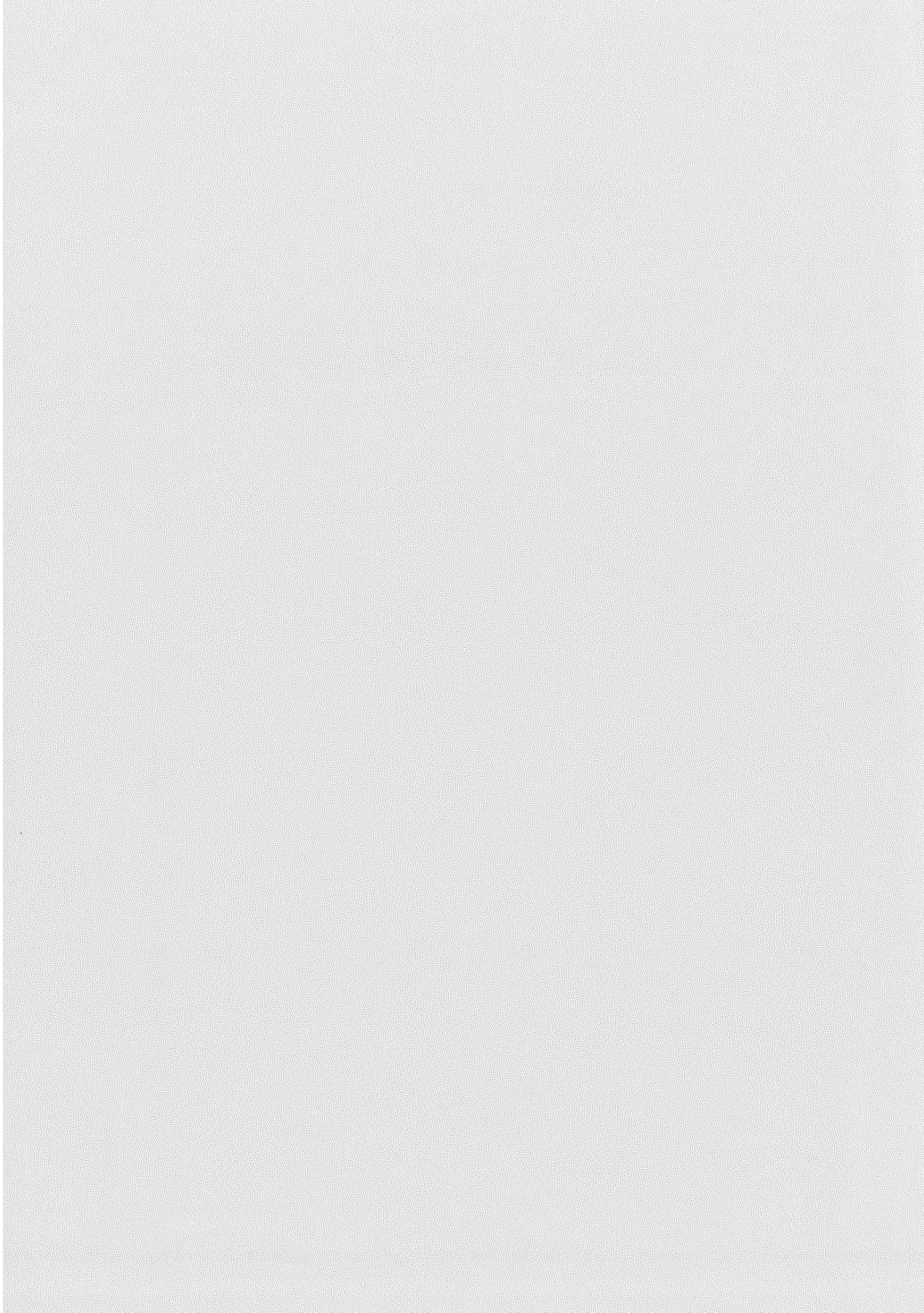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37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	3
II. 제13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7
III. 부 록	
1. 의사일정안	85
2.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87
3. 서면답변서	149
4.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경예산 편성 개요	161
V. 별 책 부 록	
▶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1회추가경정예산서(별책 1)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1월 17일 (목요일) 11시 02분

開會式順(第137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개회사
4.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왕년)

(11시 02분 개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습니다.

● 의사담당 김왕년

지금부터 제13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개 회 사

● 의장 손만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선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
행정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2002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위원회가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는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시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덕내에 행복

[제137회-개회식]

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다사다난했던 지난 해를 회고 하면서 다소의 아쉬운 점이 남아 있다면 이러한 것들은 모두 위로 하고, 올해에는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더욱 존경받고 신뢰받는 풍토 속에서 충북교육이 한 차원 높게 발전된 모습으로 교육수요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활기차게 열렸던 새로운 세기를 흔히 지식기반사회라고 일컫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기존 산업사회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교육체제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충북교육이 지식강국을 이룩하기 위한 교육시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에 걸맞는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교육민이 골고루 반영된 교육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질 높은 충북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 심혈

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제3대 교육위원회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는 만큼 우리 교육위원 모두는 남은 임기를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이며, 완전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는 집행청으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1년도 제3-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특히 주요업무 계획은 올해 충북교육시책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보고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유용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청에서는 이번 회기에 보고된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올해에도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더욱 합심하여 내 고장의 교육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1월 17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 손만재.

● 의사담당 김왕년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시 10분 폐식)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1월 17일 (목요일) 11시 10분

議事日程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37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담당관·국별 보고 및 질의)
3.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1회추가경정예산편성보고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37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교육감 제출)
4.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1회추가경정예산편성보고의건(교육감 제출)

(11시 10분 개의)

조계환 의사과장을 소개합니다.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
발령에 의하여 전입된 의사국 간부직원의
인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의사과장 단상 앞으로 나옴)

신임 조계환 의사과장은 지난 2001년 1
월 1일부터 1년간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서 연수를 마치고 이번에 의사과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1. 경과보고

(11시 11분)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까.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 의사과장 조계환

의사과장 조계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 1월 7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을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진하 교육위원 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날 공고 제2002-1호로 제13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으며, 같은 날자로 교육감으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외 1건의 교육행정 사무처리 상황 보고를 위한 의사일정 반영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 1일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신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12월 24일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1회추가경정예산편

성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청으로부터 오늘 교육감께서는 교육부 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37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12분)

● 의장 손만재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제13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7일 1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과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1회추가경정예산편성보고를 들으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3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7일 1일

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주요업무.....

(이충원 위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허락하시겠습니까?”)

● 의장 손만재

예, 뭐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이충원 위원 의석에서 “예”)

● 의장 손만재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 발언대로 나옴)

● 이충원 위원

절차를 제가 잘 모르는데 의사진행발언도 발언대에 와서 하는건가요, 그래요?

사실은 여러 위원들 아시다시피 본인이 급하게 어제입니다, 24시간 이전에 해야 하는데.....

충북교육 현안문제에 대한 심정 피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 가지 안건을 5분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정을 보니까 대단히 여러 가지 하루종일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5분을 가지고서는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토의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또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서울 올라가 가지고 자료 몇 가지를 수집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조금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래 혹여 가능하시면은 뒤로 다음 기회에 꼭 좀 제 발언을 허락하실 수 없나, 연기하실 수 없나 해서 좀 여쭙보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의장 손만재

예,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도저히 5분 가지고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또 5분 하다가 스위치 끄면은 제가 하다가 증도에 관둬야 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충원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1시 15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부교육감 유선규

존경하는 손만재 의장님, 그리고 교육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1년은 우리 교육가족이 OECD 선진국 수준의 교육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기반 구축에 매진한 뜻 깊은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가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21세기형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2단계 교단선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의 작은 정보화 사회의 건설을 위해 정보인프라를 고도화 하였으며, 학교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으로 ICT 활용교육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한편 교직사회의 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학교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여성 교육장과 여성 사무관을 처음 임용하는 등 인사분야에서도 여성 관리직 확대와 양성평등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4회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소년체전과 과학전람회 등 각종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으로써 충북

교육의 강한 교육력을 널리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충북교육이 이룬 발전과 변화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의 결과라 생각하면서, 새해에도 각종 교육시책을 더욱 알차게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환경의 변화가 더욱 심화되어 가르치는 교수기능을 넘어 스스로 배우는 학습이 더 강조되는 사회로 진전되고, 다원주의 문화가 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리라 예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삶의 모습과 문화가 바뀌고, 교실 수업에서 교육적 만남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가운데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가 더욱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새해의 충북교육은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 육성을 교육의 지표로 삼고 교육시책을 알차게 구현할 수 있도록 다섯 가지 노력 중점을 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여 창의성을 지닌 학력을 제고하는데 최우선을 두고자 합니다.

학력제고는 우리 고장 학생들을 유능한 인재로 키우기 위한 핵심과제이기에 먼저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하고 학습내용과 방법을 자기주도적인 활동중심으로 전환하도록 교실수업 개선을 적극 지원 조장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이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그동안 이룬 양적 발전을 질적 심화로 승화시킬 때 가능하다는 인식아래 학생중심의 교육활동과 ICT 활용교육이 역동적으로 전개되도록 선생님들의 교수능력 향상 등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금년도에 고등학교까지 도입되는 제7차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틀을 새롭게 바꾸는 기본 축으로써 새롭게 도입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교원확보와 시설확충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은 교육의 하드웨어 부분으로 교육과정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조화를 이루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되므로 학급당 학생수의 하향조정 등 교육여건개선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공동체가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단위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는 학교공동체를 이루어 자치력을 키워가도록 학부모가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1만 6천여 교육가족은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본도 교육이 새로운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더욱 선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교육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가를 깊이 헤아리며, 내적으로는 교육의 지나친 수단화를 경계하며, 교육 본질 구현에 충실을 기하고, 외적으로는 새로운 사회변화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의 변화와 개혁도 기본과 기초를 바로 세우는 정도를 넘어 이제는 바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과정이 되도록 각종 정책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의 세기적 전환 의미를 깊이 분석하고 교육의 전통과 미래를 포괄적으로 성찰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가는 한편, 학교교육이 과거의 교과서 중심교육에서 교육과정 중심교육으로 바꾸도록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수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적극 조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노력중심과 추진방향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본도 교육이 명실공히 선진국 수준의 교육으로 앞당겨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무쪼록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은 우리 교육청의 새해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해당 국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공보감사담당관부터 직제 순으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환 위원 의석에서 “저 의장님, 의장님.”)

● 의장 손만재

예

(조일환 위원 의석에서 “저는 이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뭐 의사진행발언은 의장님이 꼭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려면 하겠는데, 통상적으로 국회나 도의회에서도 진행발언은 의사진행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요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장님? 꼭 나가서 발언드릴까요, 여기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릴까요?”)

● 의장 손만재

예, 거기서 하셔도 좋습니다. 예, 하세요.

(조일환 위원 의석에서 발언함)

● 조일환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충북교육의 현장의 목소리, 여러 가지 충북교육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받고, 그리고 업무보고 및 충북교육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충원 위원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쪽의 질의 내지는 의견의 말씀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문제를 나름대

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을 업무보고가 끝나고 이어서 위원별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충북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손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옴)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첫째, 교육활동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에게 우수 교육활동이나 교육시책 등을 격월제로 발행되는 충북교육소식지를 통하여 교육활동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홍보용 책자 2000부를 발간하여 도내 각급학교와 학교운영위원, 교육 유관기관 등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둘째, 행정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지역교육청 5개 기관, 직속 1개 기관, 고등학교 25개교, 특수학교 4

개교, 그리고 3개 법인 등 38개 기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교육계의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 감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직기강감사는 설날이나 추석,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이 해이하기 쉬운 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공직자들의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셋째, 감사 사례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 사례 교육은 회계실무자의 행정능력을 배양하고 부정비리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12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넷째, 자체 감사담당공무원 세미나 개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담당공무원 세미나는 자체감사 운영의 효율화 도모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취약분야 기동점검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교육계의 취약 업무 부서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임으로써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우리 도내의 재산등록대상자는 총 100명으로 교육감님과 교육위원님 등 8명이

[제137회-제1차 본회의]

공개 대상자이고, 75명은 비공개 대상자, 17명은 의무 면제대상자입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감)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교육국 소관 5개 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내가 먼저 미소짓기, 인사하기, 양보하기, 도와주기, 약속지키기 등 5운동을 실천토록 하고,

12쪽입니다.

아가모 운동의 사회화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신난다 아가모 사이트 활용지도를 통해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한 환경 경제살리기 교육과 아가모 시범단지 운영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기초학력의 강화를 위해 책임지도제를 운영하여 부진아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정책연구, 실험시범학교의 내실있는 운

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자율공모제 연구학교 운영결과의 일반화 및 확산에 앞장설 것입니다.

14쪽입니다.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방법 확산에 주안점을 두고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수업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장학활동 강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영재교육의 다양화를 위하여 각종 대회를 통한 소질과 특기생 발굴 및 체계적 지도로 영재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충실을 기하여 방과후 과외활동의 교내 흡수를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체감할 수 있는 단위학교, 인근 학교 간 연계, 교육청 주관 청소년 문화 축제 등으로 특기·적성 교육활동 정착 및 활성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교원 존경풍토 조성을 위해 학부모 및 사회 대상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스승에 대한 존경심 함양에 앞장서며 자랑스러운 선생님 100분을 찾아 기념패를 수여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특수교육의 기회 확대방안으로 특수교

육 대상자 전원 취학과 함께 유치원 및 고등학교 통학교육을 추진하고 재택 순회 교육을 확대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18쪽입니다.

공정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 인사정보를 공개하며, 시·군 간 전보 순위 예고제에 의한 교원인사와 정보공개로 인한 수시 인사 상담으로 투명한 인사행정을 정립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전개하여 경로효친 교육을 내실화 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열린토론마당 시간을 알차게 운영하며, 다양한 체험학습과 봉사활동의 내실을 실천하는 인성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별 여건을 반영한 특색있는 교육과정이 편성 운영되도록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제7차 교육과정 지원과 장학협의회 연수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평가를 위하여 제7차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가방법 개선에 힘쓰고, 학업성적 관리의 시행지침을 보완하여 학력관리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도서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독서 분위기 확산과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를 활성화하고 독서교육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학생상담활동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대책반을 내실있게 운영함은 물론, 학생 축제문화가 활성화되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학생 자치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민주적 학생생활규정을 보완하여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학생 자치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화와 만남이 있는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 1학생 결연제는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학생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원, 교육행정직 공무원들과의 결연사업의 지속적 추진은 물론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랑의 결연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봉사활동을 내실있게 전개하기 위하여 학생과 교직원 중심으로 사랑의봉사단을 조직 운영, 봉사활동 정보안내센터를 활성화하고 지도교사들의 봉사활동도 지속

[제137회-제1차 본회의]

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취적 충북학생상 정립을 위해 진취, 창의, 성실과 관련된 9개 덕목의 교육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적극적이고 당당한 충북학생상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학생동아리 활동을 통한 건강한 정서함양을 위해 1학생 1동아리 참여를 권장하고 영역별 다양한 동아리 활동 운영 및 학교간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랑나눔 대화마당 운영을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가 같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학생생활규정을 제정·운영하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담임·통신장학제를 운영하여 정시 장학지도에 병행하여 학교별 담임 장학사를 배치하여 학력제고와 학생 비행 예방에 주력하면서 정보통신을 이용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담임·통신장학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적극적인 통일외지 함양을 위하여 통일 직무연수과정 운영과 연찬회를 개최하여 통일교육 담당자의 전문적인 소양을 증진하고 안보와 화해 협력의 균형있는 통일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

국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및 국내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원어민 외국어 교사의 활용도를 높이며, 첨단 어학실 설치를 위한 지원을 하고, 외국어 경시대회와 다국어 문화교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교과수업개선연구회와 교과교육연구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중등 15개 교과 전공 교사들이 참여하는 연구회를 조직하여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력제고와 연계한 알찬 연구회 활동이 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02년도 신규교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중등교사 임용후보자를 적기에 선발하고, 원활한 교원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학교장 및 교사초빙제는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로 총 9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장 초빙제를 실시하고, 교사초빙제는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26개교로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인사공모제를 운영하여 진취적이고 능력있는 교육공무원을 공개적으로 발탁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여 충북교육의 위상을 제고시키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연수 기회 확대를 통해 연수체제 개선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연수 확대 실시와 정보화 연수의 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교과소양 인증 취득을 권장하여 모든 교원이 석사 이상의 학위취득과 실업계 전문 교과 관련 분야에서는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원단체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복지증진과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교섭 및 협약을 추진하며, 노사관련 교원연수를 강화하고, 교섭안 의견수렴을 위한 교원단체와 학부모 대상 토론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실업교육과 업무계획입니다.

기초과학 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교육과 학연구원 및 학교 과학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과학과 현장학습을 지원하고, 중평중학교 자연사과학관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과학과 수월성 교육을 위하여 지역교육청별로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과학영재반을 운영하고 과학기술원 및 청주교육대학과의 연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발명공작교실 다섯 실을 운영하고 한 개 실을

설치하여 발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환경보전의 생활화를 위해 도지정 시범 학교 운영 및 환경 장학자료 활용으로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환경보전 체험 학습 실시를 통하여 환경보전의식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교육의 현장 적응성 제고를 위하여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실업계 고교체제 개편으로 교명변경 5개교, 운영체제 개편 2개교, 학과개편은 6개교에 13개 학과를 10개 학과로 통·폐합하여 2002학년부터 시행하겠으며, 이에 필요한 전문교과교사 부전공 연수를 7개 교과에 70명을 이수시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직업교육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지정 시범학교 3개교, 도교육청 지정 직업교육 1개교를 운영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전통예절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생활관 및 예절실 운영을 확대하여 남녀 학생에게 실시하고, 지역사회의 향교 시설 활용을 통한 예절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해 남녀 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대한 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성희롱에 대한 고충처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관리자, 교직원, 학생, 학

[제137회-제1차 본회의]

부모에게 연 2회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교육정보화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정보화 기반 구축 및 활용을 활성화 하며, 교육정보화 종합 발전을 위한 10대 과제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급 학교 교실에 설치되어 활용하고 있는 노후 컴퓨터, 주변기기,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 ICT 활용 교육 시범단지 및 모델 학교를 운영하겠으며, 교육 콘텐츠를 자체로 선정한 정책과제 30편 및 프리젠테이션 자료 3,000편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1,946명에게 대여되는 컴퓨터 리스료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 1,946명과 소년소녀가장 271명의 통신비를 월 1만 6,500원씩 지원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정보화 교육 활성화 면에서 교원정보화 교육을 전 교원의 33%가 넘는 4,073명을 대상으로 10개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연수하고 학부모, 정보화 교육은 시범학교 39개교를 선정하여 1개교당 214만원씩 지원하겠으며, 제16회 충북학생정보올림피아드를 4월 중에, 제3회 충북컴퓨터꿈나무 축제 및 교원홈페이지 공모전은 10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교육행정업무 전산화 추진 면에서 전국 단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행정 전 분야인 10개 대영역을 정보화합니다.

교육행정업무 전산화는 교육행정 전산망을 운영하고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교육정보화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면에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정보화 당면 문제를 지원하고 학교가 요구시 ICT 활용 교수-학습방법 및 자료제작 연수 강사를 지원하겠습니다.

39쪽, 평생교육체육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당 2개 강좌 이상 운영토록 지도하고, 12개교의 평생교육 시범 및 중심학교를 운영하며, 공모제를 통한 평생교육 선도 교 22개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앙도서관을 충북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로 운영하며, 시·군 소재 14개 공공도서관 및 학생회관을 지역 평생학습관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각종 평생교육 강좌를 5개 강좌 이상 확대·운영토록 지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문화센터로서 최신 지식·정보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학생수련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의 학년, 학급, 동아리별 수련활동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학생야영장 등 다양한 수련시설 활용, 특성화, 전문화된 수련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테마식 수련활동 전개 등을 통하여 다양한 수련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단체 활동의 강화로 1학생 1교사 1단체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인사를 지도자로 활용하는 지역대 조직 운영 확대와 단체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도교사의 연수 기회확대, 불우청소년의 단체 가입 활동, 각 단체별 가족캠프 등을 적극 추진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 단체 활동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학교 체육의 활성화는 학생들의 기초체력향상, 운동능력신장, 건강증진 및 공동체 정신 함양 등을 목적으로 1인 1체육동아리 가입을 전교생에게 권장하여 방과후 체육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각급 학교 수준에 맞는 1교 1특색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원 체육을 120일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담임, 교과담당교사, 또는 양호교사가 관련 교과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별로 학교 의사, 약사를 위촉하여 활용토록 함은 물론, 초·중·고·특수학교에 양호교사 291명을 배치하며, 미배치 학교는 인근 학교 양호교사를 순회 근무토록 하겠으며, 학교 보건실을 확충·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를 위하여 상수도 인입 또는 정수시설 설치 등 급수시설을 개선하고,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를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운영 및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유관기관 합동으로 월 1회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모든 급식학교에 식품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식중독 발생을 대비하여 대응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학생 중식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기 중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에게 급식비를 180일 내지 220일을 지원하고, 또 토·공휴일 및 방학 중에는 학기 중 지원자 중에서 가정에서 점심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들에게 주·부식 등을

[제137회-제1차 본회의]

145일 내지 185일을 지원하겠으며, 지원 단가는 학기 중 1인 1식당 초등학생 1,500원, 중·고등학생 2,000원을 지원하고, 토·공휴일 및 방학 중은 1인 1식당 2,500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5개 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총무과 소관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급 학교 당직근무제도 개선입니다.

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당직근무 부담 경감을 위해 재택당직 및 인력경비업체의 용역 등의 방법으로 200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급 학교 당직근무제도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4년도까지 100% 완료토록 하겠으며,

둘째,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은 교육행정 지원체제 고충 및 학교 현장의 교육행정력 제고를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에 교육행정직 9급 50명을 공개채용할 계획이고,

셋째,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방안 수립 추진은 실적과 능력에 의한 공정한 인사운영 관행을 확립,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 방안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기획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업무계획 추진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지표 및 5대 시책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이를 위해 금년도에 20개 대과제, 60개 중과제, 209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둘째, 지역교육청 평가는 지역교육청의 책무성을 제고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청 간의 선의의 경쟁 촉진으로 지원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격년제 평가를 유지하여 2002년도에는 2000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2년 간의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교육정책창안제는 본도 교육정책의 특성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며,

넷째,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용계획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용계획의 기본방향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개선과 제7차 교육과정의 목표 구현에 두고 추진

하겠으며, 상반기에는 2003학년도와 2004학년도의 학생 수용계획을 변경·수립하고 하반기에는 2005학년도 수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03학년도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고 전학년 35명으로 감축·적용하되, 실업고 3학년의 경우 청주, 청원지역은 40명, 기타 지역은 39명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2004학년도 이후에는 모두 급당 35명으로 감축·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한 학교신설은 과다학교 분리 및 과밀학급 해소와 택지개발지역 내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하고자 상반기에는 2002년 3월 1일자로 청주시 개신 택지개발지구 내에 개신초등학교를 개교하고, 하반기에는 2002년 9월 1일자로 청주시 용암 택지개발지구 내에 동주초등학교를 개교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초등학교 2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3교 등 10개교를, 2004년도에는 초등학교 6개교를 개교 목표로 추진하는 등 총 18개교를 신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실증축은 2002년 학급당 35명 감축을 위한 고등학교 교실 89실은 2001년도에 착공하여 건축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초·중학교는 초등학교 235실, 중학교 125실 등 360실을 증축할 계획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확정되면 금년도에 증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학교신설과 교실증축이 마무리되면 학급당 학생수 감축 추진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개선을 이룩하고, 지역 간의 균형된 교육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째, 소규모 학교 개편을 위해서는 기본방향을 본교 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 분교장은 학생수 20명 이하인 분교장을 대상으로 하되 1면 1본교 유지의 원칙으로 하며, 지역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2002년 3월 1일자로 영동노송초등학교와 보은 탄부초등학교사직분교장 외 3개 분교장을 폐지하고, 옥천농월초등학교 외 2개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이 소규모 학교 개편으로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적정 규모화를 통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교육환경개선으로 농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섯째, 교육재정 및 학교회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절감의 지속적 추진과 교육여건개선

[제137회-제1차 본회의]

및 제7차 교육과정 사업 추진에 효율적인 재정을 지원하고, 학교회계제도 시행에 따른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 재정 운영을 위하여 학교 예산편성 심의에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학교예산의 배분방법 및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원업무경감 10대 방안에 대하여는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10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추진하였으며, 특히 금년도부터 2005년까지 교원 사무보조 인력을 전 학교에 배치하는 등 교원들의 업무부담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덟째, 일하는 방식 개선 10대 추진과제 실천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합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행정 경쟁력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전자결재 확대 등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비능률 저효율적인 업무와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전 학교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활동 강화, 학교운영위원회의 홍보 및 행정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사립학교 교육의 내실화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립학교 재정결합 보조금 67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물품구매단가 결정 입찰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단가결정 입찰품목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첨단 교육교재 및 양질의 물품을 적정가격으로 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투명성있는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스쿨뱅킹제 도입 확대입니다.

공납금 수납업무의 전산관리 체계 구축으로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스쿨뱅킹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교육금고 등을 통해 스쿨뱅킹제도의 편리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각종 회의 또는 지도 방문시 도입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으며, 상반기에 시·읍·면지역 학교는 스쿨뱅킹제를 완전 정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체수입 증대를 위해 분청 및 지역교육청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각급 기관 보유자금을 최소화 하고, 유유자금

을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간 이자수입 50억원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중·고 자녀에게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분기별로 3만 1,000명에게 93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미활용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탑재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으며,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활용시에는 수의계약에 의거 임대 또는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환경개선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40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교원편의실 23실을 확충하고 27실의 노후교실을 개축하고자 하며, 2,504실의 난방개선과 124실의 화장실을 개선하는 등 학생과 교직원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둘째, 학교시설의 다양화, 유연화 사업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새로운 교

수학습 형태에 부응할 수 있도록 150여 억원을 투자하여 초·중·고 42개교에 다양한 학습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며, 연차적인 투자로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서해수련원 신축공사는 115억여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전체 공정의 70%를 추진할 예정이며, 2003년도 완공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해양탐구능력 신장으로 세계를 향한 충북인 육성에 노력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별첨 2)
(끝에 실음)

● 의장 손만재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보고사항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회의장을 소회의실로 옮김)

● 의장 손만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심한 감기로 인해서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식으로 하고 답변 종료 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회의규칙 제23조에서 1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일환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을 10분이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의 본질을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 충북교육의 비전을 밝히고 교육적인 정책을 밝히면서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또 우리 충북교육을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업무보고를 정말 금년에 이와 같은 것이나 내용면에서 상당히 충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1년을 총체적으로 나름대로 평가

한 사항, 이런 것도 겸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공보감사담당관에 5페이지에 보시면은 38개 기관 중에서 5개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어느 교육청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담당관님 어디 가셨어요?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입니다.

조일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은 1월달에 제천교육청, 6월에 음성교육청, 7월에 청주교육청, 8월엔 괴산교육청, 10월에 진천교육청이 되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작년에는 몇 개 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작년에 3개 지역교육청입니다.

● 조일환 위원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영동교육청, 충주교육청, 청원교육청 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럼 작년에 3개 교육청을 감사한 결과, 결과를 분석을 하셨을텐데요 공통적

으로 일반적으로 잘된 점, 잘 진행을 하고 있다. 또 공통적으로 이러한 점이 많이 지적이 됐다 하면은 어떤 점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그 내용은 분석표로서의 통계수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추가 답변 드릴 때에 드리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3)

(끝에 실음)

● 조일환 위원

그 다음에 부분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됩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부분감사는 자체에서 선정하는 것이라든가 감사원, 그 다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한 취약분야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면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러면 지금의 교육청에서 학교나 기관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렇게 부

분감사를 나가죠?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예, 나가고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진천교육청만은 부분감사를 나가야 되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제가 금년 7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직접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결코 저도 7년여 교육위원을 했기 때문에 충북교육에 대해서 잘못 견제를 하고 잘못 대안을 제시했다면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면하려는 게 아니라, 진천교육청 같은 데는 작년에 초빙 교육장이죠? 뭐라고 그러는겨.....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공모제 교육장입니다.

● 조일환 위원

그렇죠?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예

● 조일환 위원

그 분이 공개적으로 노출한 사항이 일단 말이죠. 재판과정에서 “나는 고혈압이고, 당뇨고, 이명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나는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나는 도장을 그냥 찍은 거지 난 몰랐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공개적으로 나왔는데도 이 교육장이 진천교육청의 교육장 업무를, 가능한지 안한지 이것에 대한 감사를 안했다면,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보더라도.....

또 공모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식과 덕망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분감사에 대한 것을 금년에는 철저히 하시고 지난 해 안하셨다면 금년에라도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이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것도 나중에 결정되는 대로 해 주시고, 왜, 진천교육청이 맨 나중에 들어가 있어요. 교육청의 일선의 교육의 이게 대들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성 있는 교육청인데도 이걸 맨 마지막에 가서 감사를 한다, 이런 것은 좀 우리 교육의 효율성에서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결정이 되시면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2002년 12월 중에 감사사례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 2000년 12월인데 혹시 2001년도에 우리 감사사례교육을 총 평가해서, 그러니까 2002년 감사에 대비해서, 또는 2002년에 교육현장의 소위 수정이나 참고사항을 추출을 해서 이것을 2001년 12월에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002년에 감사방향을 하려고 하면은 2001년에 총 감사한 것을 분석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관계되는 시·군교육청 내지는 본청에 감사 관련 직원과 이것에 대한 것을 자체감사 담당공무원이 직속기관·고등학교·특수학교 회계실무자, 이것을 말에 짚어야 이게 적당하지 않을까,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일단은 사례교육 자체가 연말 분석 평가로 보지만 정확한 내용은 일괄 답변드릴 때에 드리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항간에 그 징계 양정에 대해서 형명성을 많이 이야기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문경고인데도 그 자리에 머물고, 어떤 사람은 불문경고를 받고서

도 인사문책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징계 없이도 인사문책이나 이런 걸 당한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감사가 이렇게 양정이 공평하지 못할 때에 과연 감사행정이 객관성 있고 또는 형평성 있는 이러한 지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의 금년에, 좋은 수정안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신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예, 뭐 좋은 의견이나 말씀을 지금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기관의 실정이라든가 그 정황, 또 감사기관의 그 업무추진한 그 상황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특정 기관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은 그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 답변드릴 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러면 2001년도, 2001년도에 문책성 인사, 그렇죠? 그 다음에 인사 내지는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징계조치를 한 것이 있을 겁니다.

또 형사상 문제가 됐는데도 미리 자리를 옮겨놓고, 이래가지고 이것을 어떤 면 죄부를 줬다는 그러한 얘기가 들리고, 짐작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

면은 검찰에 또는 수사기관에 비리나 여러 가지 형사상 문제로 인지가 돼서 문서상 이것이 접수가 되면은 그것이 종결돼야 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이 우리 충북 교육의 문제점도 그거 아닙니까? 판결이 나와 어떻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미리, 미리 자리를 옮긴다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그것보다 더 중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먼저번 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못한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안되는 거예요?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예, 그 사항도 저희가,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고유업무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인사담당 부서하고 내용을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번 자료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자료조사를 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의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죠?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예, 서면으로.....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3)

(끝에 실음)

● 조일환 위원

예, 부탁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초등교육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손만재

위원님 잠깐만요.

● 조일환 위원

예

● 의장 손만재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일괄 질의를 해 주시고, 일괄 답변을 들으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하실 때는 일문일답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의장님, 그렇게 하면 더 어렵지 않을까요?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 의장 손만재

제가 선언을 미리 해 댔기 때문에.....

● 조일환 위원

아니 뭐 수정하셔도 됩니다.

● 의장 손만재

지켜주시고, 이따 보충 질의하실 때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 조일환 위원

그러면 제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기초학력강화, 지금 학원이 정보화, 컴퓨터 학원에서 외국어 학원으로 갔습니

다.

제일 많이 다니는 학원이 외국어예요. 반면에 모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국어사용능력, 이것이 대학은 약 30%, 초·중은 25.6% 수준밖에 안된다 이거죠. 그마만큼 우리 나라 국어가 소홀히 되고 있다. 그래서 기초학력 대단히 힘을 쓰시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외국어를 많이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교육에서 담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학부모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다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공교육에서 흡수할 수 있는 외국어의 수준을 높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 또 외국어로 인해서 과다하게 학부모가 현지 연수라든지 학원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는 간단한 회화 몇마디 가르치는데 수요자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좀 해 주시고, 현재 우리 충북의 사교육비가 이것으로 인해서 막대하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중등교육과,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7차 교육과정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학교가 학교다워야 되고, 교사가 교사다워야 되고, 학생이 학생다워야 되고, 그

런데 학교가 7차 교육과정을 아무런 준비 없이 교사의 수급이 모자라, 교육과정의 분석이나, 또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나 이런 것이 사전에 되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학생 조정에 대한 시설도 문제가 되겠죠, 또 교사수급도 종합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문제점과 준비상황, 이것을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에서 제가 학교장 및 교사초빙제 확대, 이거 잘 아시다시피 교장초빙은 교장 임기의 목적을 묘하게 합법적으로 변태한 이러한 쪽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장의 초빙제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제 구실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임기제의 정말로 해 보시니까 왜 이러한 현상이 됐는가, 이러한 원인과 또 초빙을 하는데 대개가 죄송합니다만은 짜맞추어 식으로 하려는, 누구는 들러리고 누구는 주연이다, 이런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8페이지, 7차 교육과정 연수 확대 실시,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거를 하는데, 제가 거기다가 합쳐서 하는데 이게 지금 정보화 연수기반, 이것은 대단히 여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외국어 수준을 따라가려면 상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외국어 연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서 제가 얼핏 봐서는 그런 교육이 전무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이것은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학실업교육입니다, 32페이지.

실업계 학교의 본지 설립목적이 희석된다, 이것은 잘 아시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공고나 농고나 정보화나 이 학생들을 데려다 쓸래도 소위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자라, 이것은 안돼, 그러니까 이게 안맞는 거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주문생산식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A라는 공장에서 한번 기초조사를 해 보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이 얼마나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 어느 학교에서 얼마든지 이걸 정확, 정말로 이렇게 실업계를 운영하려면 좀더 적극적으로 정말 진로지도를 해 줘야지, 2+1 가지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항이 좋은 아이디어다,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은 앞으

로 채택 여부나 이것에 대한 실시 계획을 한번 하실 용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학부모의 정보화 교육인데 그 학부모들 상당히 정보화입니다.

이것도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들한테 외국어 교육을 하면 어떨까, 학부모들한테. 이게 실제 학부모들한테 정보화 교육하는 목적이 뭐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교육비를 줄이고 이것을 도입을 하면서 영어의 수준은 이렇고 발달 과정은 이러니까 초등학교 수준은 이러니까 학원에 안보내도 좋다 보내도 좋다 하는 그런 것을 분별할 수가 있고, 해서 저는 이제 정보화를 위한 학부모의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외국어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도 중요하다. 이것에 대한 견해를 좀 부탁 올립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먹는 샘물, 이거 과장님 자꾸 이 말씀 드려서 미안해요. 그런데 지금 간이 상수도를 쓰고 있는 농촌의 상수도는 거의가 불량 음용수입니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내가 달라면 줘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아직도 이걸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세밀하게 내가 요전에 말씀드린 대로 겨울방학 동안에 음용수 검수하셔야 돼요, 그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 조일환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강화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올리면서 급식으로 넘어갑시다.

43페이지, 이 식중독이 과거에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 조일환 위원

저는 급식소를 가보니까 우선 급식소의 시설에 문제가 있어요. 우선 급식소를 짓는 데에 그 보건위생 급식시설에 맞는 게 아니에요. 우선 창이 바닥면적의 5분의 1 내지 7분의 1은 되어 된다, 벽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 된다, 그런 데가 하나도 없어요. 조명은 간접, 직접, 자연, 자연과 간접, 조리실이 50룩스에서 100룩스 되어 된다, 아닙니다. 급식 1인당 면적이 얼마야 된다, 0.1㎡, 안됩니다. 또 급식인원에 비해서 냉동시설, 냉장시설, 또 자외선 살균시설 면적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보건위생에 맞는 그러한 시설이 안돼 있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한번 현장을 표집을 해서 한번 보세요. 이러니까.....

두 번째 문제, 지금 조리사를 농촌에는

학교의 급식소에서 다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까, 못하는 데 있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 조일환 위원

이게 안됩니다.

단체 학교급식을 하는데 조리사 자격증이 없이 어찌 거기서 밥을 합니까? 어찌 거기서 식품을 취급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 학교, 교육기관에서 그 규칙을 법을 안지키는데, 이것은 예산이 문제되면은 예산을 해서라도,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학원에 위탁을 해서 자격증을 따도록 하는 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포도상구균이 왜 생기는가도 모르는데, 염기성비보르균이 해물에서 오는 건지 모르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식 사고가 많이 난다, 과장님 이 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시설하고 조리사의 이것에 대한 것을 꼭 좀 점검하시고, 과장님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 조일환 위원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우리 방학 중의 결식아동, 이거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볼 때는 단가가 조금 낮지 않느냐, 우리가 학부모 동원이라든가 무척 애를 쓰는데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가 법적 기준의 열량이라든가 영양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의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제가 기획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교육청 평가입니다.

이것은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위 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평가단 구성하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오늘날까지 평가단을 구성하는데 상당히, 상당히 객관성이 결여된 심사위원이 심사를 했다 하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뜯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사위원, 심의위원 구성할 때 제가 수번 말씀을 드리는데 식품 쪽이면은 그 도에나 식품 사회단체나 또 교육 쪽이면은 무슨 연구단체나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적하지 마시고 어느 학교의 전직 교장, 어느 학교의 교육장, 전부 위원 아니예요? 미안하지만, 저는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 눈에는 그것만 띄니까, 그래서 이

교육청이 평가를 하실 때에 그런 얘기가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작년도에 교육청 평가의 심사위원 명단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추진계획인데, 교육정책창안제 운영에 2001년 실적 좀 주세요, 2001년도.

그래서 금년에도 해 보실라는데 제가 실적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1면 1본교 유지, 이게 원칙인데 여기 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고려해서 탄력적 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 하고 상치되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자칫 의견수렴하기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객관성 있게 저울로 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것에 대한 항목이 제가 볼 때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잘 운영, 기술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연구시범학교 운영, 이거 국장님 말이요, 그 교육과학연구원인가요 과학교육연구원인가요, 거기 는 두 기관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먼저번에 봐도 업무보고를 받고 놀라는 것이 뭐 직원은 한두 명인가 별로 안늘었어요. 그런데 두 기관의 업무를 차

질 없이 잘 하고 있어요. 고맙고, 다만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두 가지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출판하는 인쇄물이 뭐뭐 있습니까, 홍보물이나 이런 거.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그 자료를 조사해서.....

● 조일환 위원

조사해서 주시고, 이것을 연구원에서 충북교육인가 매달 발간을 해요. 그런데 두 기관이 합쳐지고 업무도 많은 데다가 그것까지 한다, 이것은 어떤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공보감사담당관이나 이런 쪽으로 이관해서 업무를 덜어주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어떤가 의견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연구시범학교, 연구시범학교, 이것은 지정 따로 있고, 운영 따로 있고, 평가 따로 있다, 이것은 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일원화 해야지, 여론이 있는데, 연구원의 본래의 목적이 뭐니까? 집행청은 행정이란 말여, 행정. 어디가 적당한가 고르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골라 줄테니까 연구실적 평가 해서 보고해라,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은? 그래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차지해서 대단히 죄송

합니다.

제가 하나만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할 텐데 시설과에 59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 교원편의 확충, 쾌적한 환경 개선,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시설이 야말로 연간계획, 중간계획, 장기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것에 준해서 해야 되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사립이나 공립이나 투명해야 되고,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요즘 심심치 않게 이 시설 관계 때문에 감옥소에 가는 교육자가 있습니다.

제도를 잘못 운영해서 전과자를 양성하는 꼴이 되는 거죠.

내가 사립학교 운영하는 사람이라도 돈 있는 사람은 시설비를 주고, 돈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책임질테니까 내가 누구 돈이라도 빌려서 자금 잔금 증명해서 빚지고 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산 주시오.” 얻어다가 안되니까 공사자한테 돈 얻어가지고 자부담 메꾸고 더 받아 가지고 학교시설 하고, 이런 게 되겠느냐, 이 걸 알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물이 뜨겁다 라면 얼른 손을 떼어야지, 교육자들을 전과자를 양성하는 꼴밖에 안되요. 또 열악한 사학재단은 아무 사업도 할 수가 없어, 실제적인, 자체 재정능력이 없으니까. 맨날 뒤져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꼭 사립학교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고, 또 연간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이 없으니까 항간

에서 사립학교는 어느어느 사립에만 돈을 많이 준다, 어디는 안줬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나 이것에 대한 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보충질의 때 답변해 주실 때 말씀드리고,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그야말로 충북교육의, 우수한 충북교육 아닙니까, 최우수 교육청 아니예요. 어느 교장이 물품구입하고 돈 먹고 유치장 가는, 이제 그런 시·도 되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냥 이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또 오늘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심이 아니라 제가 공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설령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잘못됐더라도 제 본지는 그게 아니라 저도 충북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임무를 다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손만재

조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충원 위원

예

● 의장 손만재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이충원 위원입니다.

10분의 시간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도 시간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일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충북의 교육계에 감사하시는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됩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예, 확인해 가지고 일괄 답변할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두 번째입니다.

지금 회계감사하고 교육감사하고 둘로 나눠서 하십니까, 한꺼번에 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은 행정직이죠?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예, 그렇습니다.

● 이충원 위원

거기 교육직에, 거기에 준하는 장학관이 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직위에 준하는 장학관이 없습니다.

● 이충원 위원

제가 왜 여쭙보느냐 하면은 현장에서 그런 것을 항상 보면은 감사하실 때,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정기감사하실 때 보면은 감사담당 책임자가 과장님이 계실 경우도 있지만은 그쪽의 감사 받는 쪽은 교육직을 가지고 있는 교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금씩은 자꾸 받는 입장도 하는 입장도 거북하다는 것이 있다 라는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책임자야 어떻든지간에 교육분야는 교육의 전문가, 또 행정은 행정전문가가 나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방법에 관한 겁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교육계에 자체감사에 의해서 소위 문제가 되고 적발된 거와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상부 지시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경우, 이 양자에 어느 분야가 더 큰가,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이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는고 하니 감사는 적발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적인 목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감사를 해서 소위 우리가 감시감사나 적발감사보다는 궤도감사와 교육감사가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처벌 위주의 감사보다는 지도와 교육적인 이유가 더 강해야 되지 않느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대답은 이따가 일괄적으로 해주실테니까.....

그 다음에 초등교육과에 여쭙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즉 보니까요 제가 눈에 안 띄어서 그러는데 잘해 놓으셨네요, 많이.

그런데 가장 걱정이 되어야 할 일에 대한 것이 눈에 안 띄어요. 분명히 금년에 가장 걱정되어야 할 것이 교원 충원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 제가 못봤나 여기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 금년에. 그래서 절대적인 수가 모자라는데 그러면서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거 35명이니, 이거 어떻하실 건가. 또 금년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서 상부와 이런 교섭을 하고 있다, 뭔가 나와야 하지 않나, 그래서 좀 여쭙보는 겁니다.

제가 잘 못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암만 찾아봐도 없네요.

중등교육과에 여쭙보겠습니다.

분명히 학교마다 프랭카드가 걸렸습니

다, 최우수 교육청.

사실 교육이 해야 할 일이,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애들을 얼마나 잘 가르쳤느냐, 이것이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모이면 얘기할 거 없습니다, 애들 잘 가르쳐야지 뭐, 문서가 좀 덜 났다 하더라도 꾸중을 듣더라도 애들 잘 가르쳐서 정말 인재를 많이 양성해야 되는데, 금년에 수능 성적의 전국적인 그레이드(Grade: 정도, 등급)가 어느정도 되셨나요? 국장님.

왜 이 말씀을 여쭙는고 하니 제가 요전에 어디 갔을 때 보니까 다른 시·도 보니까 그것이 나와 있어요. 어디가 금년에 대구하고 광주가 금년에 성적이 어떻다, 이렇게 나왔는데, 눈을 씻고 볼래도 우리 신문에는 충북이 금년에 수능시험이라고 그러죠, 그 수능시험에 우리가 어떤 기준, 어느정도다. 왜 그런 말씀을 하는고 하니 이것이 돼 있어야, 알아야 다음에 우리가 교육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국적인 어떤 그계 없기 때문에, 다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작년에 한 것이. 그 전에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여가지고서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되니까 안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정도인가, 외부에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라고 하면은 각 학교의 책임자만 이라도 알아야 적어도 교육의 어떤 학습 기준이라고 할까요, 평가기준이 아닙니

다, 학습기준을 제대로 잡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교육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장초빙제가 아까 조 위원님이 물었습니다.

교사초빙제는 제가 모르고 교장초빙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왜 청주시나 제천시나 충주시, 대도시에는 초빙제를 안하나요? 저 시골에 기피하는 지역에만 초빙제를 해본들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따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공모제입니다.

교육장님, 지난해 교육장 공모했습니다. 제가 작년도도 물었고 재작년도도 물었습니다.

이 공개는 정말 본질적인 공개의 뜻을 살려라, 국장님 작년에 안계셔서 모르지만 교육감님께 제가 강하게 질의했습니다.

이미 공개에 나가기 전에 누구누구가 그 지역에 나갈 것이라는 헛소문, 이거 헛소문이라고 했습니다. 헛소문이 돌고 있어요. 다음에 보면 그 분이 또 안돼, 물론 거기에는 그 분이 그만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지역에 갈만한 사람이

기 때문에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몇 번 하셨는데, 공모제에 대한 평가를 해볼 시기가 됐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더라, 이런 단점이 있더라,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겠다, 혹시 그런 게 해보신 게 있으시면은 이것을 같이 공모제를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원단체에 관한 겁니다.

제가 안 여쭙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교원단체에서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도단체 충북의 교원단체와 우리 교육청과의 가장 큰 문제의 이슈가 핵심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고뇌에 찬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직업교육의 현장성 제고인데 직업교육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잘해 놓으셨네요.

거기 보면 정신없이 교명이 변경돼요. 이거 졸업생들이 논의가 될 거고, 문제가 될 거고 저희도 그래요, 저희들도 이거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만 대개 보면 '아, 그게 그랬든가' 하는 정도의 교명을 바꾸는 것으로써 교육의 내적 충실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교명을 자꾸 바꾸는 건가, 또한 두 번씩 바꾸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모집을 하는데 이 명칭이 아니면 불가능한가, 운영적 면에서 교명을 바꾸는 건가, 이것도 좀 연구하신 게 있으실테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바꾸지 말자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꾸 바꾸니까 말이요.....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지역별보다 보편은 체육특기생, 체육 특기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별도로 지도하는 코치, 이 배치기준이 뭔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요, 예를 들면 옥천같은 데를 제가 가보니까요, 제가 현장 다닙니다, 교육위원으로서 마땅히 현장 가봐야 됩니다, 그게 제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 특기 지도교사가 없어가지고 코치가 없어가지고 어디에 가보니까 개인이 저기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방법이 없는가. 기왕에 지정해 주셨으면은 그 학생들의 코치가 없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 그래 제가 요전에 자료를 달라고 그래 봤어요. 한정된 인원수 가지고 배치하기는 어렵대요, 보니까. 앞으로 좀 늘려야 하지 않나, 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돈만 들면 제가 얘기하지 않죠, 몇천, 몇억 들면. 그리고 어떤 데 보

면은 100만원씩 준다고 그러는데 해박야 1,200만원인가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있는데 이것은 전혀 없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좀 언급하기가 어려워서 안하는데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금년에 선거가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정말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준비가 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충실히 운영하기 위해서 되는 건가, 전자입니다. 전자인데 상당히 쓸데 없는 잡음들이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들은 소리도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 내실화만 죽 돼 있지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조직,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이 안돼 있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입니다.

의장님, 몇분 남았어요?

● 의장 손만재

시간은 지났습니다.

(웃음소리)

● 이충원 위원

다목적 교실 아까 죽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어느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서라도 얻어와야 한다는 대원칙은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얻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힘 있는 국회의원은

많이 얻어다가 빈익빈 부익부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봤을 때 결국 욕을 먹는 건, 그 내용은 모르고 우리가 교육계의 이러한 것은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가 욕을 먹습니다.

그래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이 얻어 온다고 그러면 전제를 붙여야 합니다.

두군데 하려면 하나는 내 마음대로 쓰고 하나는 정말로 봐서 꼭 쥐야 할 때가 있으면 “거기 주겠다.” 라고 한다든지, 뭐 좀 심한 말씀이 됩시다만은 그럼 못하겠다 라고 하면 하는 수 없이 하나라도 얻어와야죠, 그거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충청북도 학교 전부 400 몇십 개 죽 써놓고서 여기 꼭 해 쥐야 되겠다 하는 어떤 플레이 규칙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넘버 간에 교류가 있어가지고 그 근처에서 그것을 해 쥐야지 별 잡음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요전에 제가 본예산 할 때도 그 말씀을 여쭙습니다.

국장님, 그것도 그 범위 내에서 적어도 금년에는 그것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예산배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끌어가고, 힘 없는 사람 하나도 못 끌어가고, 끌어간 사람 유

능하고, 이렇게 되면은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해 주셔야, 뭐 대답보다도 요청을, 안될 때 안되더라도 적어도 그런 설득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끝났습니다.

● 의장 손만재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일 위원

예, 제가.....

● 의장 손만재

예, 이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빼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초등교육과에 아가모 운동이 잘 실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거기에 부언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껴쓰고 가르고 모으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가끔 학교에 가보면 아직도 아껴쓰는 게 생활이 안돼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안찾아가요. 우산이라든지 시계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가 분실한 물건,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지도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요근래 마스크의 발달 때문에 그런지 학생들이 지나치게 고가, 비싼 브랜드의 상품을 선호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지어는 철없는 아이는 그것을 안사주면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달라고 항의를 하는데 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들이 많다보니까 이걸 못해 줘서 가슴태우는 학부형들 제가 여럿 봤습니다. 운동화도 십수만원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나치게 학생들이 쓰기에는 고가고 사치스러운 것을 착용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원존경풍토 조성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이 피폐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선생님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선생님들을 존경하지 않는 풍토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근래도 선생님이 어떤 사소한 문제로 경찰에 조사를 받을 때, 제가 알기로는 분명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서 연행을 하든지 소환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쑥 학교에까지 들어와서 연행을 해 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최근에 충주의 모 학교 교장선생님이 연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조사받을 게 있고 잘못된 게 있으니까 연행을 해 가겠죠.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을 들여보면 전교생이 있고 모든 선생님이 계시는 앞에서 긴급체포라는 형식으로 교장선생님을 연행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존경풍토는 우리 교육계만 외쳐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분명 지역사회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부감님께서서는 우리 관내 기관장 회의 같은 것이 있을 때 그 분들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적어도 선생님이 또는 교장선생님이 학교 내에서는 존경받을 수 있도록, 조금 잘못했더라도 그 부끄러운 꼴을 동료 직원들이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당하지 않도록 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한 방법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등교육과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뭐 여기에 안세워 왔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요근래 금연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얼마 전에 서울특별시에서도 “학교 내에서는 담배 못 피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담배의 그 나쁘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학

생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어떻게 접근해 가겠는가. 또 어떤 분들은 그렇니다. 담배 안피우는 사람의 권리도 있지만 흡연가의, 애연가의 권리도 있다. 그런 반론을 하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나 방법같은 게 있으시면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일환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리보조원의 일비, 그 보수가 대단히 적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 많은 일들을 하는 분들이 사실상 노력에 비해서 보수가 적다고 그렇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인상할 길이 없는 걸로, 작년에 1,000원인가 올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 줘야 그 분들이 어떤 때는 인원을 적게 쓰느라고 하는지 하루종일 일을 해서 어깨에 멍이 들고 결리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다만 얼마라도 더 인상해서 자기가 노력한 것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현실화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으신지 좀.....

마지막으로 교원업무경감 10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계셔서 대단히 바람직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는 업무가 경감이 된다고 그러는데 일선의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 업무가 늘어난다고 그렇니다.

그래서 여기 궁여지책으로 이거 안되겠다 싶어서 아마 교무보조인력을 비치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을 어떻게 선발을 하실 건지, 어떤 정도의 자격을 갖추게 하고 이 사람들 대우는 어떤 건지, 그 사람들의 질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맡길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전문잡지에서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선생님들이 하루에 2시간 이상 잡무를 처리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한 43% 정도 됩니다. 물론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 이하일 수도 있죠.

그래서 교원업무경감 10대 방안이 좀더 구체적으로 실시가 돼서 선생님들의 일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무보조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거고 선발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손만재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질의를 아직 안하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집행청에 여러 선생님, 주요업무계획 작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주요업무계획을 받고서 전체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주요업무계획이 정말로 잘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혹시 이런 것을 통보해 갖고서 잘 세워서 우리 충북교육이 더욱 더 빛을 낼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세한 부분을 보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년 제가 주요업무계획을 연초에 받아 봤습니다.

제안설명도 듣고 합니다. 듣고 했는데, 교육위원을 몇 년 하다보니까 이제 업무 계획이 그럼 작년하고 올해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과연, 물론 우리 교육청의 업무계획이나 모든 것을 국가 교육정책의 틀 안에서 계획을 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하지만은 작년 계획과 올 계획이 차이가 어디에 뭐가 첨부됐으며, 어떠한 것이 차별화 돼 있느냐, 또 타 교육청보다는 어떤 계획들이 더 들어가고 충북교육이 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계획을 하기 전에 그러한 한 해의 계획을 물론 감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증합니다, 검증하는데, 계획한 것이 성취도는 얼마나 되고, 이것에 대한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얼마 전에 충북교육 비전 21이라고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계획이 장기계획 속에 중기계획이 나와야 되고, 중기계획 속에 단기가 나와야 되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전체의 중장기 계획이 충북교육 비전 21 위에 그 틀에 틀 안에서 합리적으로 편성됐는가 하는 얘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은 저희가 교육위원들이 여러군데 현장방문도 해보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가 남해의 수련원도 가보고, 경남 산촌 유학 학교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경남 산촌 유학 학교는 폐교를 한 자리였다가 야영시설을 잘해 놔 갖고 학생들의 수련활동과 선생님들의 연찬을 위해 갖고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부지 구입할 필요도 없고, 자연 경관도 수려한 이런 것을 이용해 갖고서 아주 싼 가격으로 수련장을 만들고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현장을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도 전국 텔레비전에 방영이 되고, 이런 특성있는 것도 한번 해봄직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봤고, 또 남해에 갔을 때 폐교가 된 그 해변에 있는 학교를 그대로 이용해 갖고서 학생수련을 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우리는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다가 없지만은 우리는 그 대신 아름다운 폐교한 학교, 산천을 이용해 갖고서 학생들 수련할 수 있는 그런 수련 장소를 더욱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이

안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서교육을 위해 갖고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얘기는 너무도 학생들이 독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성현들은 고전을 읽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정서교육이 돼서 부모한테 효도하고 어른한테는 존경하는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됐습니다.

우리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은 오래된 고전을 읽혀서 학생들한테 효심과 또는 존경심, 스승에 대한 존경심, 부모한테 효도하는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고전을 많이 읽히는 이러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과연 돼 있는지, 혹시 안 돼 있다고 하면 그런 쪽을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학생들이 음란 사이트나 폭력물, 이런 것에 대한 학생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차단해서 학생들이 정말로 정서함양에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계획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정말 참을성도 없고, 어느 경우는 침을 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은 (칭취불능) 모 고등학교 졸업생한테 맞아 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학생들이 참을성 없고, 인명에 대한 존엄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이런 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서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이 섰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차 교육과정 시행인데, 사실 이것은 말입니다 지금 교육계가 황폐한 원인 중에서 교원정년을 갑자기 62세로 내리고, 그 다음에 명퇴받고 그래 갖고 교육사회에 이 사기가 선생님들이 떨어져서, 교육이란 뭐냐 하면은 무슨 노동이나 뭐 같이 밀어 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정말로 마음에 우리나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리나라 갖고서 학생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원정년 62세로 갑자기 내리고, 그 다음에 명퇴가 돼 갖고서 교원들을 내보내고, 그래갖고 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 7차 교육과정 실시해서 선생님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7차 교육과정 시행,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더 소요가 되죠, 그 다음에 급당 인원을 갑자기 35명으로 내려갖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실에 맞지않고 수용할 수 없

을 때에는 그것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원단체, 특히 전교조 같은 데서는 7차 교육과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의 시행이랄까 앞으로 노력한다는 그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교원단체와 충분한 상의를 해 갖고 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7차 교육과정의 성공 문제도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협조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단체나 전교조든지, 이런 선생님들 단체와 충분히 얘기가 돼서 같은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시행하겠끔 그런 노력도 기울여야 되고, 만약 이게 안된다면 정부에 건의해서 “못하겠다” 말여, 이러한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전염병과 성인병 예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물론 식중독 사고도 많이 나고 해마다 전염병, 이질, 이런 병에 학생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우리가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또 학교급식에서 음식이나 다른 측면에서도 교육이 제대로 안돼 갖고 어린이들이 당뇨병 같은 성인병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없게끔 우리가 운동도 시키고, 또 영양관리나 몸 건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정말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이러한 건강한 육체와 이것을 통제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과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페이지 28페이지에 모든 교원에게 석사학위 취득을 하게끔 권장한다, 물론 사실 우리 선생님들은 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연찬기회를 통해 갖고서 (청취불능)나 교사자격증을 따시고 그러는데 지금 교직에 봉직하고 있으면서 많은 공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먼저 실력을 갖추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석사학위 취득을 권장함으로써 오히려 그게 학력 인프레를 올리게끔 하는 거 아니냐, 중·고등학교야 많이 배울수록 좋지만은 박사 소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부 권장함으로써 석사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도 부득이해 갖고서 석사학위를 안할 수 없게끔 분위기를 형성해 준다면 그냥 학력 인프레만 되는 게 아니냐 생각도 들고, 또 선생님들한테 권장한다면 이 분들에게 어떤 것을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권장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권장할 것이며, 또 그냥 무조건 가라고 해 갖고서 할 것인가, 이 분들에게 어떤 대학의 등록금을 일부를 대 준다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개 미국의 초등학교는 아주 학교가 (청취불능) 상당히 적습니다.

큰 가정집만한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를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시키기 보다는 그 학교를 잘 이용해서 정말로 1대 1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학교를 그냥 유지시켜 가지고서 학생들의 정서교육이나 모든 교육에 선생님들이 직접 가까이서 교육시킬 수 있게끔 통·폐합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소규모 학교 통·폐합 된다면 거기 있는 학부모들이 학생들 취학을 위해서 농촌을 떠나는 이농현상도 부채질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청에서의 앞으로 통·폐합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리척결 문제를, 해마다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하지만은 그 체결을 위한 예방대책 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혹시 프로그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만재

예,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진하 위원

예

● 의장 손만재

송진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오늘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이 보고내용이 너무 요약됐고, 또 개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보고라면은 학부모나 도의회에서 한다면은 다 이해하겠지만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보고라면은 2001년도, 작년도에 충북교육의 결과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도 교육의 현실정은 어떻고, 우리 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더욱 발전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새롭게 받아들일 문제는 무엇이고, 이렇게 했을 때 예상되는 교육의 성과는 무엇이나,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 하는 거 하고, 세부적인 문제는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기초학력의 강화 문제인데, 이 기초학력을 지도해서 내보내야 된다 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등학교에 다니고 한글과 국어를 모르는 학생이 얼마다 하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했을 때, 정말로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빨리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초학력을 해소한다, 기초학력 미달자를 해소한다 하는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수십년 전부터 강조한 문제입니다.

그 때에도 시범학교, 연구학교 정해가지고 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시범학교, 연구학교를 지금까지도 정해야 하느냐, 이것보다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체 학교에서 모든 교사가 이 기초학력을 쌓은, 말하자면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을 구제한 교사를 표창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중심학교니 연구학교를 해 가지고 연구학교에 점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쪽

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도내 모든 교사 중에서 이러한 실적을 올린 교사를 표창하고, 뭐 보수를 주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고, 또 그 많은 실적을 올린 그 학교를 표창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이 문제는 조일환 위원이나 이충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하신 건데, 학교장과 교사초빙제 문제입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금년에 한 분만 초빙 학교에 신청을 했다,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이 희망이 없을 것 같은 학교에 지정하는 거, 그러니까 다음 3월 1일자로 교장, 교감이 되든 교사가 되든 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몇 개 학교만 지명을 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하면 되는 거지, 몇 개 학교만 정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거기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학교당 2개 강좌 이상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전 학교에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인적 물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중요합니다, 꼭 해야 합니

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다양한 그러한 평생교육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지역인사를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쪽으로 교사들에게 이 일까지도 부여를 한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잡무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에게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 물론 평생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교사들에게 이것을 또 떠넘기는, 이것은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또 누가 하느냐, 교사가 하도록 하지 말고 수당을 주더라도 자원인사가 하고, 자원인사가 없을 경우에는 또 어떤 대책을 세우든가 이렇게 해서 희망하는 교사가 있으면 좋겠죠, 해서 중요한 반면 교사들에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에대해서 이상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결식학생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자라나는 학생들이 밥을 못 먹었다고 하는 문제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점심을 굶고 앉아서 머리에 지도하는 게 들어갑니까? 문제 학생이니 뭐니 하지만은 굶고서 어떻게 선량한 학생을 기르니까. 그러니까 이 결식학생 문제는 중요 업무 중에도 가장 중요업무가 돼야 되겠는데, 여기 보면은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 지원 일수, 지원 날짜는 있어도 도 대체 우리 도에 몇 명이나 더 있을 같은

가 하는 분석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결식학생이 중간에 많이 늘어나 가지고 뭐 어디 지원을 받고, 돕기를 하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구걸해서 먹이지 말고 뿔뿔이 예산으로 먹여주고, 이렇게 우리는 행정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럼 도대체 결식학생이, 금년도죠, 2002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 또 감소할 것이냐, 이런 것을 분석해서 대책이 서야 업무계획이 되는 거지, 언제 먹이고, 단가 얼마다, 이런 것만 한다면 무슨 뜻이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시설과입니다.

조일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2002년도 투자계획에 교실 증·개축이 27실이에요. 여기는 도에서 하는 증·개축만 있는 것인가, 시·군에서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 7차 교육과정 아까도 언급이 계셨는데 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이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시설지원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간단히 추진계획, 이것만 세웠을 때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얘기가 되겠는가, 좀더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는 시·군은 안하게 되니까 시·군 뒤편까지도 이러한 중요한 문제

는 여기에 발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손만재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광수 위원

예

● 의장 손만재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김광수 교육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오늘 발표를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그런 계획에 의해서 좀더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위에서 여러 교육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주셔서 저는 그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사교육입니다.

매년 우리가 사교육비를 줄여야 되겠다, 이러면서도 해가 거듭할수록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육계의 입장에서 보다 더 진지하고, 아주 심도있게 이것을 연구

하고 평가해서 우리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교육비가 왜 증가하고 있는가, 그 원인 분석부터 이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은 뭐니뭐니 해도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교육이라고 볼 적에 여기에도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인성교육이 보다 더 철저하게 잘 돼야지만이 이 교육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됐을 때 말하자면 교육이 참으로 필요하지,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참말로 좋은 옷을 입혀봐야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학생다운 학생, 사람다운 사람으로서의 학생을 길러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 학교에 아직도 학생폭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형이.

이런 것들이 참 우리 독버섯처럼 우리 학교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교육에 엄청난 그러한 방해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학원 내에서

학생폭력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인가,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시다만은 학교에 연구학교가 너무 많다, 그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정학교, 또 도교육청 지정학교, 또 지역교육청 말하자면 지정학교, 이것도 교과별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담당해야 할 장학사 수는, 지도자는 한정이 돼 있는데 연구학교가 이렇게 많아서 결국에는 실효성 있는 그러한 연구학교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그전부터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그런 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그전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하나의 경과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되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기왕 연구학교라면은 참말로 그 실효성 있는 그런 연구가 되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고, 여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교육위원님들이 그 직업 교육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업학교는 그런 대로 학생이 대학교 진학 못하는 학생들이 참말 산업체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농업학교 출신 학생들은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될 것인가, 이것도

같이 연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모쪼록 참 충북교육을 담당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담당관님들이 참 많이 심혈을 기울여가면서 교육의 일선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충북교육이 잘돼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다도 더 우리 충북교육이 잘돼 나가도록 성의와 열을 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만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청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데, 얼마정도 필요하시겠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한 30분 정도.....

● 의장 손만재

30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 이충원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손만재

예

● 이충원 위원

이 답변 말씀인데요, 저희가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따지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지금 현재 교육계획서, 바뀌

애기하면 금년에 실행해야 할 교육의 백서입니다.

저희가 얘기해 준 것을 참고하셔서 충실하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것은 이렇게 좀더 첨가하겠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신다면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손만재

어떻습니까? 30분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하시기에 자료가 많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 조일환 위원

아니 이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불충분하거나 또 여기에 업무하기 위해서 지난 충북교육을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것을 비교·검토했을 때에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잘못된 거다,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쪽이니까 저는 특별히 말입니다 30분, 서면 뭐 좋은데, 그것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안해도, 주무 과장님이 업무 안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는데 부담이 안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기수 위원

아니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 김광수 위원

이런 얘기 하다보면 시간이 그만치 가는 거예요.

● 이기수 위원

여섯 분이나 되기 때문에.....

● 의장 손만재

예, 30분 동안.....

● 부교육감 유선규

의견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답변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 의장 손만재

예, 30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청 관계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계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예,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입니다.

조일환 위원님께서 처음 질의하신 2001년도 지역교육청 감사결과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서면으로 달라고 그랬죠?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예, 알았습니다.

● 조일환 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3)

(끝에 실음)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두 번째, 진천교육청 감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진천교육청 감사는 현재 10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3년 주기로 감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진천교육청에 대한 별도의 부분감사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실무자 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실무자 교육은 매년 12월 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1년간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분야별로 발췌해서 각급 학급 실무자에게 똑같은 내용의 지적이 없도록 사전예방 차원의 교육입니다.

본 도에서는 감사사례집을 매년 발간·보급하고 있습니다.

징계 양정의 형평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처분에 있어 처분 양정은 동일 사안은 가급적 동일한 처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인사조치 후 징계처분 건은 형사입건 되어 통보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주세요,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예

● 조일환 위원

2001년도 결토.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3)

(끝에 실음)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추가로 질의하신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충북교육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발간하는 데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충북교육은 새로운 교육이론이나 교육정보, 교육동향 등 교육전문가들이 집필해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또 발행주기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간하여 각급 학교 및 교육 유관기관에 현재 배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발행하고 있는 충북교육소식지는 충북교육의 우수사례나 주요업무, 교육시책 등을 가지고 2개월에 1회 발간하는 소식지로서 시의적절하게 충북교육을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 교육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가만있어요, 담당관님, 괜히 말씀이 지금 어렵고 참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공보 업무를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충북교육 같은 것도 전문인이 있으면 전문인한테 정기적으로 어떤 청구 위탁을 한다든지, 제가 볼 때 과학교육원이라는 데가 업무가 엄청 늘어나면 서도 인원은 그대로이고, 뭔가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하겠느냐 못하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현재 상태로서는 어렵습니다.

● 조일환 위원

어렵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예, 전문성 때문에.

● 조일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로 그 다음 넘어가세요.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이충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01년도 감사 중 가장 문제가 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2001년도에 조치사항으로는 징계 1명, 경고 76명, 주의 410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된 사항은 징계 1건인데 이것은 고등학교 재학생 중 자퇴한 학생의 부모가 학비보조수당을 받기 위한 것하고,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 그 납입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그 직인을 도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러니까 교원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책임자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교원입니다.

● 이충원 위원

교원요?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예, 그래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인데 단 한 건이 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감사방법에 관하여, 외부감사와 내부감사의 비중

은 어떠하며 예방감사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외부감사 기관으로는 감사원,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감사가 있습니다.

본 도의 외부감사는 2000년도에 감사원 종합감사, 2001년도에 감사원 성과감사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감사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도의 감사는 주로 내부 자체 감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감사는 예방감사 위주로 감사방향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 도에서도 예방감사로써 시설공사 2,500만원 이상을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만재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국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조예도 깊으시고,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

린다면은 짧은 시간 내에 이 많은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일환 위원님과 송진하 위원님께서 다 함께 지적하신 기초학력 강화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이나 기본학력의 문제는 2001년도에 와서 그 개념 자체가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2000학년도까지는 기초학력, 기본학력에 대한 개념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001학년도에 와 가지고서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읽기, 쓰기, 연산능력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본학력이라는 것은 각 학년의 교육과정상의 최저 수준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학력이 모자라는 학생들이 일부의 고등학교에서까지 발견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력제고를 위해서는 이 기초학력을 먼저 신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기본학력을 신장시키고, 또 창의적인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독서교육이 반드시 여기에 병행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기초학력 강화와 기본학력 강화, 그 다음에 체계적

인 독서교육의 효율성을 찾기 위해 가지고 이 세 가지 문제를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다면은 학부모들이 지금 학생들을 컴퓨터 교육을 시키다 외국어 학원으로다가 보내고 이러는 이 개인의 사교육의 욕구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공교육의 한계라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하고자 하는 것은 기초학력 신장, 그리고 기본학력 신장, 그리고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독서 체계적인 독서를 동반시켜서 나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조일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7차 교육과정 진행 및 준비, 연수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준비상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방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로 올려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조일환 위원

그러세요.

● 교육국장 조봉래

자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일환 위원님과 이충원 위원님, 송진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학교장 및 교사초빙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가만있어요, 잊어버릴까봐 그러는데,

그 7차 교육과정 그 관계 준비상황을 주실 때에 그 교사 연수문제도 같이.....

● 교육국장 조봉래

예, 연수, 기록해 놨습니다.

그 학교장 및 교사초빙제의 문제점인데 학교장초빙제를 실시함으로써 교육 당사자의 학교운영에 대한 관심과 그 초빙된 교장의 학교운영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 임기제와 관련해 가지고서 교장초빙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교장 평균 정년이 교장 임기가 두 번을 연임을 할 수 있어가지고서 8년인데 이 교장 임기를 마칠 만큼 많이 남은 경우가 대개는 없습니다. 대개는 없어서 교장임기제가 아직은 악용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악용되는 없지 않은가.....

● 조일환 위원

앞으로?

● 교육국장 조봉래

예

● 조일환 위원

과거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 교육국장 조봉래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교장초빙제를 대도시에 기피하는 이유

에 대해서는 초빙 교장을 우선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학교운영위원과의 협조 속에 지역학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좋은 대도시의 학교를 초빙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교원 간에 경쟁이 이게 대단히 심할 것입니다.

가령 청주 시내에 어느 학교에다가 교장초빙제라든가 또는 교사초빙제라든가 이런 거를 할 경우에는 대단한 경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 가지고서 교장초빙제의 목적보다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 학교 초빙제를 지금 억제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후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의 외국어 연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초등학교 교사의 외국어 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금년 여름방학 때 치코대학에 10명의 초등교사를 하계 휴가 중에 보내 가지고 연수를 시킨다든지, 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외국어 교육을 들어가기 때문에, 영어교육을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사전연수를 시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게 3학년 담임 요원, 4

학년 담임 요원, 5학년 담임 요원, 6학년 담임 요원, 이렇게 해 가지고서 들어가기 전에, 전 해에 120시간의 연수를 지금까지 시켜 왔습니다.

● 조일환 위원

방학동안에 합니까?

● 교육국장 조봉래

예, 방학동안에.

● 조일환 위원

몇 명이나?

● 교육국장 조봉래

담임 전체의 수요 만큼.

● 조일환 위원

전 도에?

● 교육국장 조봉래

예, 전 도에.

● 조일환 위원

어제 여기 만나왔더라구요.

● 교육국장 조봉래

예, 여기는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시키고 있지만은 사실상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120시간을 시켜가지고서 원활하게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올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먹는 물 문제는 조일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했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여러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 위원님께

서 여러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음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고, 또 비위생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1월 중에 한번 실시하셨어요? 제일 갈 시기인데 1월이.

● 교육국장 조봉래

1월 중에.....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할 계획입니다.

● 조일환 위원

할 계획이에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아니 이번에 아직 방학 때라 먹을 때가 안돼서.

● 조일환 위원

예, 해 주세요.

● 교육국장 조봉래

그 다음에 조일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식당시설규정 미달의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보건위생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급식 위생원 채용 문제는 이상일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됐는데 예산 관계상 참 힘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올려준다는 것이 일당 2만 1,000원에서 겨우 1,000원 올려 가지고서 2만 2,000원을 책정을 했습니

다.

이것은 특별히 예산이 뭐 대폭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한은 시정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 정보화 교육을 외국어 교육으로 전환할 저거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이게 학부모 정보화 교육을 하는 것은 국고사업으로다 목적비로다 내려와 있습니다. 목적비로 나와 있어서 변경이 불가하고, 그 주 교육내용이 뭐냐 하면 인터넷 아이 따라잡기,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가 내용을 알아야만 학생교육이 가능합니다. 음란물을 차단한다든지, 또는 생활에 적용한다든지, 그래서 이 정보화 교육을 하는 것이고, 예산이 지금 8,600만원 와 있어가지고서 서른아홉 개 학교인가에 214만원씩 이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외국어 교육 쪽으로 전환을 하기는 매우 힘든 그런 형편이고, 또 외국어 교육을 위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세울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니까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조일환 위원

예, 예.

● 교육국장 조봉래

그 다음에 이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원충원 대책에 대한 것은 중등에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2학년도와 2003학년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초등교원 결원 예정 인원은 기존 기간제 교사가 250명, 정원증가 84명, 명예퇴직 및 퇴직자 13명 등 총 347명이고, 충원 인원이 신규교사 임용 233명으로 충원하고 부족한 114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114명은 기간제 교사를 임용해서 활용하는 도리밖에는 없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이거 보충질문 시에 좀 생략이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 기간제 교사는 정년이 없습니까?

● 교육국장 조봉래

정년을 적용할 도리가 없습니다.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지금 65세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65세?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예

● 조일환 위원

알았습니다.

● 교육국장 조봉래

지금 젊은 사람들만 뽑아 쓴다든지 할 형편이 못 됩니다.

● 조일환 위원

65세 이상은 없어요?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안됩니다.

● 이충원 위원

이게 앞으로 얼마나 가야 해결이 되겠습니까?

● 교육국장 조봉래

이게 이제 지금 교육대학에 위탁을 해 가지고서 학사 편입을 시키는 그 선생님들이 졸업하는 연도나 돼야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좀 무모하시다 싶은 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면 2003년에는 어떻게 하고, 2004년에는 어떻게 한다고 계획표가 죽 나왔어요, 급당 인원수. 그런데 갈수록 선생님은 모자라는데 이걸 제가 볼 때 계획이 잘못된 것 같아, 안맞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가 모자라는데, 여기 계획에 어디 나왔죠, 아까? 제가 봤는데 2003년도에 가면 어떻게 하고, 2004년도에 가면 어떻게 하고 연도별로 학급수 줄고 뭐 이래 학생수 줄고 이래 나왔는데 이걸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학생수를 좀 덜 줄이더라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여, 이거 잘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국장 조봉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충원 위원님께서 수능성적, 작년도의 수능성적이 충청북도가 어느 수준이나 하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심지어는 학생들의 개인 석차도 발표를 하지 않고, 또 각 시·도별 비교성적도 발표를 하지 않고 그랬는데, 돌아 다니는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는지도 저로서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은 제 입장에서는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예, 이해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키라는 것은 제일 잘 지키니까, 우리가.

그런데 타 시·도에 신문에 그때 가보면 이게 자꾸 난단 말이에요. 이거 안났을 때 무마가 돌아요. 좋은 것이 있을 때는 발표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 영 숨기는 듯한 그런 자꾸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학지도에도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어서 나오나 모르겠어요.

● 교육국장 조봉래

그래서 그 비교평가가 사실은 모의고사도 지금 각 시·도별이라든지 학교별 비

교평가를 못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절벽입니다.

● 이충원 위원

그럼 타 도에서 발표하는 것은 조작인가 그럼?

● 교육국장 조봉래

글쎄요, 그 문제는 제가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부교육감 유선규

제 짐작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제가 평가원에 직접 전화를 했어요.

인문계, 실업계 구분해서 우리가 어느 수준인지를 알아야 나를 알고 지도를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이 아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친분관계가 있어도 우리가 얘기해 주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는 발표를 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네들 자체 내에서 시험 본 것에 대한 채점을 하지 않았나, 그것도 다 한 것은 아니고 일부 해 가지고 평균을 잡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력수준을 어느정도 알아야 그에 따른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냐 해서 고심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만 고집피워가지고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이 또 어떤 면으로 봐서는 너무 과잉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로서는 그것을 발표할 수가 없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알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등수를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학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애들 성적 올리고, 아까 어떤 분 말씀대로 인격, 정말 고매한 인격 우리가 지도하도록, 육성 되도록 하는 건데, 첫째 이 학습에 대해서는 별로 여기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 교육국장 조봉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다가 저희가 학력제고에 대해서는 2002학년도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기초학력이라든가 기본학력이라든가 창의적인 그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한 체계적인 독서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학력신장에 대해서 중등에 없기에 제가 물어보는 것 뿐입니다. 다른 것은 제가.....

● 교육국장 조봉래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장 공모 문제는 교육장 공모제는 아시다시피 신청한 서류를 중심으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통해 가지고 선발하고 있고, 또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헛소문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충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정도 벌써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했나,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자평은 좀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 교육국장 조봉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충원 위원님께서 교원단체와 교육청과의 핵심문제는 무엇이며, 그 해결방법은 무엇이나 하는 문제인데, 매우 어려운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교원단체로는 한국교원노동조합, 그 다음에 전국 교원노동조합, 교총, 이렇게 해가지고서 세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 충북지부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교조 충북지

부와는 교육감 퇴진요구 사안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 현재까지 참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선 교육감으로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해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충원 위원

예, 거기 첨언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교직단체들에 대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좀 폭넓은 포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문제입니다.

지금 교직단체들과 극과 극을 달리는, 서로 마주보고 기적이 없이 달리는 기차의 모습과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 지금의 교육현안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진지하게 무릎을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야 할 시점이 되지 않느냐, 두 번 아니면 세 번, 세 번 아니면 네 번, 끝도 시작도 없이 계속 될는지 모릅니다.

법 이전에 교육의 논리로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교직단체에 대해서 제가

포용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만 모든 문제들이 풀리지 않나 하는 점에서 제가 여쭙본 것입니다.

● 교육국장 조봉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충원 위원님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충원 위원님께서 교명변경과 교육적, 내적 충실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업계 고교 체제 및 운영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교육수요자와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업계 고교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또 학교별 전문화, 특성화를 위해서 첨단분야에 기초한 학과 개편에 따라 교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교명과 학과개편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바꿈으로써 직업교육을 내실화 하고, 또 학생모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이충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는고 하면은 어떤 학교는 교명 바꾼 지가 그거 설립한 지가 2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또 한번 바꿨단 말여, 후년쯤 또 바뀌야 될 거예요.

● 교육국장 조봉래

어느 학교 말씀하시는지 저도 알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래서 서울같은 데 외국어대학 같은

데 보면은요 공과가 있지만은 명칭은 그대로 되는 거고, 일본에는 뭐 그런 게 많 습니다.

그래서 교명 지을 때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번에 또 바뀌야 할 교명 명칭은 없어요? 아직 없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지난번에 의결해 주신 거.....

● 이충원 위원

그거.

● 교육국장 조봉래

지난번에 의결해 주신 것 외에는 없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 이외에는 없어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일부 있습니다, 사립학교.

● 이충원 위원

또 있어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영동상고가 영동인터넷 학교로.....

● 교육국장 조봉래

그것은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청취불능) 의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 **교육국장 조봉래**

이사회에서 올라와서 하는 거니까.

다음 체육지도 코치에 대한 문제인데 현재 순회코치가 28종목에 66명을 임용 배정하고 있고 그런데, 예산 관계로나 해가지고 참 힘듭니다. 그 이상은 더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사실은 이게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노력으로다가 대학으로 가는 코치를 중·고등학교로다가 끌어들이고 이렇게 했어도 이게 해결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국장님, 어느 지역에서는 지금 그 지역의 유지가 지금 코치를 기한제로다 지금 월급을 주고 있는 데는 아시죠?

● **교육국장 조봉래**

그것 뿐만이 아니고 학부모님들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이것을 좀, 교육청 예산 없는 것 같지만 보면 많아요. 1조원에 가깝습니다 지금.

● **교육국장 조봉래**

제가 일선에서 금천고등학교에 있을 때 금천고등학교에 볼링 코치를 안준다고 평생교육체육과장님하고 한 대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아, 이게 내가 몰라도 상당히 모르고서 달려들

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 **이충원 위원**

또 한판 하세요.

● **교육국장 조봉래**

한판 하면 뭐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우리 (청취불능) 굉장히 사기가 올라가는데요, 전체적으로 늘려가면서 그런 걸 하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교육국장 조봉래**

그 다음에 이상일 위원님께서 아가모 운동의, 그 분실물을 찾아가지 않는다든가 고가 브랜드를 선호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사회풍토라든지 또는 학부모들의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오히려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존경 풍토 조성의 문제는, 이것은 교원존경 풍토라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 우리들이 우리들의 자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회적인 풍토라든가 지역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욱 교원존경 풍토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연운동에 대해서 이상일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전에 이 금연운동은 처음에 서울에서 6월달부터 시행한다고 신문보도를 터뜨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은밀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계획을 좀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에는 그만 서울교육청한테 뺏겼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또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시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함께 합쳐서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직원의 협조라든가 또는 학부모의 협조, 또 지역사회와의 협조, 이런 것들이 없이는 근절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교직원, 학부모의 적극적인 동참 하에서 시행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색사업 분석자료를 제시하고 그 특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의 일관성이라든가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수 위원님께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고전교육, 특히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인 독서교육의 방향을 위해서 지금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계획수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란물 차단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아이 따라잡기 등의 학부모 교육, 학부모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또 예산을 받아서 캐시서버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차 교육과정 여건 개선의 문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회의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학위문제를 말씀을.....

● 이기수 위원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적인 시행상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건의를 교육인적자원부에 하고 있는 겁니까?

● 교육국장 조병래

예, 그렇죠.

● 이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전교조 같은 데는 7차 교육과정을 거부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제 그리고 그쪽하고 대화도 같이 병행해서 선생님들이 우리 7차 교육과정을 받아들여 갖고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갔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야만이 그게 성과를 거두지, 교직원체나 이런 쪽에서는 7차 교육과정을 연기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서 거부하는 분위기인데, 결국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든지, 아니면 같이 말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것을 시행하기 어렵다든지 해 갖고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강력히 건의한다든지 해 갖고 교육청끼리 연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 중에 7차 교육과정 시행이 사실 교사부족을 심화시키는 부분 중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더 필요한거 아닙니까, 7차 교육과정을 함으로써.

그래서 이것을 방금 우리 전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선생님들 충원 문제가 상당히 우리가 어려운 문제로 우리가 남아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어려운 때 7차 교육과정을 지금 현장에서 거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교사 충원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것을 무리하게 진행한다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

니다.

내가 아까 교원정년 단축, 명퇴, 7차 교육과정, 35명 인원 감축, 이것이 설상가상으로 교사부족 현상을 심화하는 factor(요인) 중의 하나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누구나 다 주지의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 부교육감 유선규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7차 교육과정을 하려면 우선 선생님이 더 필요하고, 또 두 번째로 시설이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7차 교육과정 공포를 '98년도 12월 31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나라 교육학자라는 분들은 거의 다 참여가 돼서 연인원 3만명, 그래서 한 50억 정도가 투자가 돼서 7차 교육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이상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현실은 거기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와서 그것을 6차 교육과정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형편이 안 되는 것이 우선 당장 교과서가 없습니다.

교과서가 지금 보통 1억 6,000만 권이 생산이 되어 되는데 지금 1억 6,000만 권 생산하려면 거의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7차 교육과정을 안한다고 할 경우에 6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가 공급이 되어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서두에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만은 7차 교육과정은, 예전에는 교과서를 가지고 그 교과서를 가르치는 교육, 수동적인 교육을 했습니다만은 7차 교육과정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 시점에서 그것을 연기한다거나 하기는 상당히 힘든 형편입니다.

교과서를 만드는 문제, 교육과정을 만드는 문제, 물론 거기에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듭니다만은 제가 지금 7차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들어간 돈은 뭐 조 단위로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도 거의 3,4년이 허비가 되고, 아이들이 한 권을 사는데, 3,000원, 4,000원 사는데 그게 엄청난 액수가 됩니다.

그때 차라리 교육과정을 바꾸지 말고 그 돈을 교육환경개선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것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여하간 현 정권으로 오기 전, 전 정권에서 교육과정을 개정을 하고 그때부터 시발이 돼서 교과서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을 중단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점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원문제라든지 시설문제라든지 교육과정운영문제라든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씩 조금씩 보완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모든 우리 나라 교육학자 여러분들이 그것이 가장 이상론이다, 이상적이다 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만은 그쪽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조금 조금씩 보완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요즘에 저희가 몇 년 전에 논의되었던 열린교육, 오픈 에듀케이션, 인포멀 에듀케이션이라는 얘기, 그거 참 우리가 열린교육으로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걸로 우리는 보고 공간의 열림, 교과과정의 열림, 커리큘럼에 대한 열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연찬도 하고 저도 거기 참여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제, 물론 거기에 대한 기

본 바탕은 다 뭐 그대로 교육과정에 스며 들어 갖고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그 얘기 자체를 쓰지말라고 한 지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어느 시점에 끝났어야 잘한 얘기냐, 이런 것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어려운 문제를 계속해 나감으로써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좋은 제도지만은 시기를 잘 맞추어 따라서 그것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열린교육에 대한 문제를 연찬회도 많이 참석했지만 제가 2대 교육위원을 하면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열린교육이라는 얘기가 1920년대 영국 유치원 교육에서 출발해 갖고서 30년대 미국에 들어와 갖고 그놈이 제대로 시행을 그쪽에서도 안하다가 일본에 와서 70년대부터 열린교육이 이렇게 됐는데, 솔직히 그 얘기도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열린교육 얘기 지금 하지도 말라는 얘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잘 검토해서 갖고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시행의 시기 문제나 여러 가지를 적절한 시기에 선택한다든지 뭔가는 참 충분히 고려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 교육국장 조봉래

이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문제를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교원단체와 교육인적자원부와의 교섭문제도 걸려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느 한 교육청이라든가 또는 일부에 의해 가지고서 좌지우지 될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와 또 교원단체와의 지금 단체교섭 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하회를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송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 이기수 위원

아니 국장님, 혹시 석사과정 취득하게끔 권장한다고 했는데 선생님들에게 그러면 권장만 하고 뭔가 등록금이라든지, 지금 사실 사립대학은 대학등록금이 말입니다 280만원씩 됩니다, 한 학기에. 그런데 이거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다른 거 전혀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선생님들 많이 석사학위 받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권고하는 겁니까, 무슨 보조사항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조봉래

보조사항은 없어요.

● 이기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선생님들이 상

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그게.

등록금이 물론 국립대학의 사범대학 같으면 등록금이 120~130만원 되지만은 여기 사립대학의, 여기 지방의 사립대학의 대학원 등록금이 250만원 이상 등록금이 한 학기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1년에 등록금만 해도 500만원 되고, 책값, 이런 거 해 가지고 상당한 출혈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 교육국장 조봉래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서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송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생교육진흥 부문에 교사들이 강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업무가 가중된다 하는 문제인데, 현재 우리 교육청에 평생교육 강사 활용은 지역인사라든지 교원, 학부모 등 다양하게 강사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경우는 특기가 있는 교원 중에서 희망하는 교원에 한해 강사로 활용하고 있고, 되도록 지역인사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학생의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1년도에는 초·중·고 전교생 대비 3.9%에 해당되는 9,557명에 대하여 학기중 및 방학중 연중 365일을 지원했습니다.

2002학년도에는 학기중은 전체 학생 대비 5.2% 정도인 1만 3,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휴일 및 방학중에 점심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에 한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문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계시네요.

● 의장 손만재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잠깐 가셨어요.

서면으로 해 주세요.

● 교육국장 조봉래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3)

(끝에 실음)

● 이기수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서.....

● 교육국장 조봉래

아, 그렇습니까?

● 이기수 위원

제가 우리 교육위원들이 먼저 심방했지만은 경남 산촌 유학 학교하고 해남야영장을 했는데, 산촌 유학 학교는 사실 유학이라고 해서 타지 가서 유학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자 '배울학'자 쓰는 유학 학교더라구요, 한자로 쓰니까요.

● 교육국장 조봉래

유학 학교입니까, 간디 학교입니까?

● 간사 이기수

경남 산촌의 유학 학교죠, 먼저? 예, 유학 학교. 그래서 보니까 학생들을 자연 환경과 같이 어우러져 갖고서 교육하면서 정서교육 측면이나 또는 앉아갖고 주입시키는 이러한 측면에서는 참 싫증나는 구태의연한 교육방법과 달리 자연과 어우러져 갖고서 배우는 학교 같아요. 그래서 재미스럽게 이렇게 했는데, 시설도 폐교를 이용해 갖고 깨끗하게 잘해 놓고 했는데 그런 것 좀 어떻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교육국장 조봉래

글쎄 저희도 학생 야영수련활동에 폐교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천 학생야영장이라든지 영동, 청천, 음성, 부강, 명서, 이렇게 여섯 개 야영장이 있는데, 그 외에도 또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별로다가 16개교를 야영 협력 학교로 지정해 갖고서 학생야영수련과 체험활동에 임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학생수련장으로써 경치 좋은 폐교를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저희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만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관리국 측에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먼저 조일환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 평가위원 구성에 있어서 객관성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전문가 등 추천을 받아서 공정하게 선정을 하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지역교육청 평가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는 이제 기구 위원회하고 평가실무반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실무지원반은 업무와 관련된 담당 장학사 내지는 사무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거 당연직이나 의무직은 없는 거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사무분장을 이제 자기가.....

● 조일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또 이 명단을 보

니까 대부분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밖에서 정말 교육에도 일단 이렇게 나와서 본다든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게 그것도 저는 평가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우산을 쓰고 내 우산을 쳐다보면 맨날 그것밖에 안보인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평가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한번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죠.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또한 조일환 위원님께서 2001년도 교육정책 창안 공모 심사결과를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대강을 말씀드리면은 총 91편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서 그 중에서 교원 88편, 일반직 3편입니다.

그 중에서 교원들 3편만 우수한 것으로 창안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조일환 위원님께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기준에서 1면 1본교의 유지 원칙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문제가 상치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한 이기수 위원님께서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도에서 1면 1본교 유지가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1면 1본교 유지 시에 학생수가 너무 적어서 복식수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다다를 경우 아이들의 학습효과가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어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에는 1면 1교 유지 원칙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분교장으로 개편하든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입니다.

또한 우리 도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부모의 50%가 찬성을 하면은 폐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학교 폐지에 그 폐단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75%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통·폐합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거 아까 이기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세 명이다, 그거 어떻게 선생님 한 분을 두느냐, 그런데 저는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른 선생님 하나 해서 정말 복식수업이 안되도록 좀 하더라도 그 지역의 개발이나 농촌 사람의 환경, 그것을 해서라도 저는

우리가 이렇게 때문에 복식이니까 당연히 못한다, 이것 때문에 그러나, 그러면 그것을 오히려 능동적으로 해결을 해 주는 말여, 그런 쪽으로 정책을. 꼭 우리가 9명 이상이 돼야 학급을 하나 주고, 한 명을 주고, 9명 미만은 무조건 복식을 한다, 이런 대원칙만 주장하다 보면은 그런 소규모 학교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조일환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다음에 또한 이기수 위원님께서 상당히 통·폐합에 관해서는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너무 통·폐합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신중을 기해서 바람직한 교육이 돼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향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시에는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을 우리 교육 실정에 맞도록 그 고친 기준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일환 위원님께서 시설사업의 연간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 수립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시설사업은 사실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설사업비 교부금액과 우리 자체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시설의 경과 연수라든가 노후도, 시설여건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기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장기 지원계획이 결정 통보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계획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일환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하여야 한다는 데 시정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사학재단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2000년도까지 저희들이 국고나 지방비에서 80%를 대 주고, 20%를 사학재단에서 부담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많이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서 2001년도부터는 국고는 전액 보조를 해 주고, 자체 예산은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낙찰률을 고려해서 예산의 90%만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2002년도부터는 예산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조일환 위원

다행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또한 공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제반 법규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공개경쟁 대상 사업을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이 썼다 하더라도 집행에서는 중단할 계획입니다.

● 조일환 위원

국장님, 그것이 사학재단에서 알면 그 무슨 망발이냐고 그럴텐데, 국가에서 주는 예산, 우리 자체에서 부담하는 예산, 이것을 전액으로 줄 바에는 우리가 소기의 목적의 건물을 우리가 공립의 그런 거와 같이 집행을 하면 안 됩니까? 꼭, 꼭 돈으로 줘야 됩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이제 위원님께서 집행방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집행을 해 주면 상당히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느냐, 또한 뭐 사학의 업무도 상당히 경감되고, 또 시민들로부터 또 믿음도 주지 않겠느냐는 염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학은 대원칙이 그래도 사학 자율이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신중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부터는 사립학교에서 시설사업을 할 경우에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건설협회에 일단 통보를 하고, 저희들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경쟁 사실을 홈페이지에 실도록 해서 저희들이 건설협회에 확인을 하고, 또 우리 홈페이지도 확인을 해서 그것이 공고가 확정된 경우에 예산을 지원한 예를 보니까 한 120명 정도 이상 공개경쟁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대로 계속 가면은 사학도 시설의 잡음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어서 당분간은.....

● 조일환 위원

여기에 공기업의 입찰방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감독을 해도, 우리 공립의 예산 집행하는 식으로 짜고 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진짜 전국적으로 해서 그 굴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정도의 감독은 할 수 있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조일환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사학의 부정 부조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이상으로 조일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이충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회 선출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연수라든가 홍보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최대한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책임자가 선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운영이 된다면은 학교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학교장이 학교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우 신중을 기해서 책임자가 선출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또는 단위 학교의 역할 분담을 통한 위원회 연수를 하고, 또한 홍보를 극대화 하도록 하고, 강의식 연수에서 토론식 연수 등을 택해서 정말로 흥금 없는 대화가 오고가는 속에서 학교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라

든가 본인이 어떠한 정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심 없는 공교육을 위한 그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회의운영의 실무라든가 각종 정책, 지침 등 학교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충원 위원님께서 다목적 교실 배정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 기준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목적 교실 확충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목적이 지정이 되어서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앞으로 지역 및 학교현장이나 여러 가지 교육환경 등을 고려해서 객관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충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이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보조원의 배치계획과 선발방법, 자격, 대우 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교원 사무보조원의 배치계획은 2005년도까지 도내 공립학교의 초·중·고등학교 교무실에 1명씩을 배치할 계획이며, 2002년도에는 학교수의 40%, 2003년도에

[제137회-제1차 본회의]

는 60%, 2004년도는 80%, 2005년도에 100%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학급 이상 중·고등학교 및 사립학교는 자체 임용을 하도록 하고, 그 외의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27학급 이상의 학교는 지금 전액이 거의 학교운영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의 예산 가지고도 인건비가 충당이 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건비 부족분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선발방법 및 자격은 임용권자인 학교장이 자격조건을 설정하여 임용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임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졸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임용 기본조건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및 대우에 있어서는 1년 단위로 일용직으로 저희들이 임용을 하고, 재임용을 원하는 분들은 재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당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대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일당 2만 2,000원을 주고, 여기에 월차수당이 나 연월차 수당 등을 포함해서 284일 이

내에서 지급하도록 지금 예산 확정돼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규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개인 복지를 위한 보험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학교운영회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상일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 이상일 위원

그거 제가 조금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은 교무보조라고 하면은 상당 업무를 선생님 업무를 대신해 줄 사람들을 저희들이 희망을 하는 건데, 지금 일당 2만 2,000원을 준다고 그러면은 훌륭한 업무보조를 할만한 사람이 채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 이거 2만 2,000원은 정부에서 요청도만 가이드 라인을 정해서 보조해 준다는 그런 건가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정부에서 지금 이것은 돈은 지원되지 아니하고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체육코치라든가 또 상용, 우리 일반 상용 쪽으로 사용하는,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그 인부들이라든가 이 분들 노임단가가 사실 너무 낮다고 사실 말씀도 많이 하셨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게 상당히 논란도 되시고, 또 사실 그것이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단가가 상당히 저렴한 단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나와서 2만 2,000원을 번다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낮지만은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확보를 못한 반면에 그 중에는 또 학부모들이 부담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상용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올해 1,000원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도 현실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분이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넘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보통 7,80명씩 계시는데, 과연 이 한 분 가지고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가가지고 일이 경감이 되겠느냐 라는 데는 저희들도 상당히 부족한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의 특성상 우리 교육의 전문직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학생을 위해서 할 업무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교사만이 해야 될 그 고유영역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하지 못하고, 다만 공통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 이런 정도로 우선 시행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런데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는 건, 우리가 연초에는 교원 업무경감을 하겠다고 대단히 큰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선에 가 보면은 자꾸 늘었다고 그러지 줄었다 소리를 안 합니다.

무슨 획기적인 방법을 계획을 하셔서, 뭐 금방 여기서 제가 무슨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좀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이상일 위원님께서 교원들 업무경감에 대해서 먼저번에도 질의를 해 주시고, 이번에도 관심을 많이 표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교육청에서 10대 방안을 열 가지를 채택해서 저희들이 매년 그것을 강조하고, 가급적이면 일반직들이 웬만한 일을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다만은 사실 교무행정도 그렇고 일반행정도 그렇고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서 행정이 전문화 되고,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교육수준이라든가 주위 여건은 더 발전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이 없어지는 일보다는 다시 새로운 일이 생기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것을 느끼

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하라는 일이 많고, 그리고 또 저희들도 여기서 우리 지금 교육청에 283명이 일을 하는데 보면 매년 보면 과장님들 인력 적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는 더할 것은 사실은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교원들의 업무경감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수 위원님께서 전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다른 점과 또 교육비전 21 내용의 반영도, 타 시·도 주요업무계획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 폭넓게 질의 하셨습니다.

● 이충원 위원

가만있어 봐요, 제가 아까 이상일 위원님도 하셨는데 조금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충북에서 특별히 이거 한번 해 보시죠. 일본이나 미국의 현장,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6개월 정도만 우리 선생님들 한번 파견해 보시는 방법 없나, 말이 안통 하더라도 실제 가보면 압니다. '아, 여기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여기에서 자꾸 뭘니까 사회가 발전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 지금 2만 2,000원, 사실 자칫하면 차 심부름밖에 안됩니다. 자칫하

면은.

그럴 바에는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비교론적으로 특별히, 큰 돈 안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아, 이렇더라, 거기도 많더라' 그러면 현장에서도 그 어려운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아, 다른 나라도 똑같구나' 그런데 지금 참기 어렵습니다. 요전에 제가 한번 보니까 연간 2,200건이나 해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아마 그런 문제를 특별히 획기적으로, 혁명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타 도에도 아마 이것이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 이기수 위원

아니 그것을 첨부해서 또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공문서 양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게 많으니까 결국은 공문서 처리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큰 학교같은 데는 덜 한데, 그거 뭐 선생님 몇 분 안되는 소규모 학교, 여기는 복식 수업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분량은 똑같으니까 공문은 같이 여럿이 나눠서, 이제 가르치는 업무는 같이 하지만 그 공문서 해결은 같은 양으로 내려오니까 여기는 여섯밖에 안된다든지 하고, 한 60명 되는 학교는 분리해 갖고서 공문을 처리하고 하니까 공문 분량같은 게 상당히 많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전에도 한번 2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교육계의 3D라

고 해서 인문학교 3학년 선생님들, 또 뭘 니까 실업학교 학생주임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은 특별히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 그런 분들은 보통 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라든가 또는 사기진작 문제,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선생님들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몸으로 노동해 갖고 등으로 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애정을 가지고서 열심히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하셔야지 교과지도나 생활지도, 모든 면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하지, 지금 교원정년 문제되고, 명퇴하고 해 갖고서 선생님들 사기가 아주 최하로 저하되어 있는데 그런 때에 좋은 사기진작책을 구상해 갖고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이충원 위원님께서도 우리 본예산 심의 하실 때에도 1인당 인건비, 그 상용잡급에 대한 인건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올려 주셔야 된다 하면서 재 강조하셨고, 또 이기수 위원님께서 공문서 양이 과다하게 나가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아까 예산 문제는 저희들 자체적인 예산 문제가 있고, 또 학부형들이 부담하는 자

비부담, 수익자 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 바란스 문제도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서 저희들이 보다 좀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문서는 과거보다는 순수한 문서량은 적을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이메일이 발달돼 가지고 주로 신속하게 공문은 갑니다만은 결국은 학교에서 작성하는 분은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 정도에서는 상당히 업무량이 폭주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학교에 열일곱 명의 정원을 큰 학교에서 빼가지고 전 모든 학교에 일반행정직을 다 집어 넣어 주었습니다.

다만 이제 인력이 부족해서 13개 학교가 지금 일반행정직이 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소규모 학교 5학급까지 유지되는 학교라도 지금 일반직이 전부 가도록 되어 있고, 또한 당·속직 제도도 일단 가급적이면 재택근무나 용역을 주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하지 않는 방안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저희들이 좀 선생님들이 업무경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기수 위원님께서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색다른 점과 이 교육비전 21의 큰 장기목표 속에 있는 것의 반영도, 또 타 시·도

[제137회-제1차 본회의]

주요업무 계획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 폭넓게 질문하셨는데, 교육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지표 및 시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견해에서 주요업무 계획의 근간이 되는 지표하고, 5대 시책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다만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대과제 두 개, 중과제 네 개, 21개의 하위사업에 대해서는 신규로 집어넣거나 종전에 해 오던 것을 대폭 변경하는 걸로 저희들이 업무 추진계획은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발전계획인 충북교육비전 21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그것을 착실히 구현토록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 주요업무 계획을 수집해서 우리 도와 다른 점을 비교·분석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ICT 활용 교육 모델학교 운영 사업 등은 저희들이 올해 특색사업으로 새롭게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마치고, 다음에는 송진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이 너무 요약적이고 개괄

적이기 때문에 2001년도 분석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좀 작성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계획을 짜서 실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짧은 시간 내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요약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시에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송진하 위원님께서 교육환경개선 사업 중에서 교실 중·개축 27실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도에서만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시·군 사업도 포함되는가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교실개축 27실은 남일초등학교 교실 개축 17.5실과 청천중학교 9.5실에 대한 27실이 지금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업무계획에 포함된 것이고, 그 시설사업 연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 설명드릴 때에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린, 배부해 드린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이해를 하실 줄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진하 위원님께서 제7차 교육과정 시설지원은 연차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시면서 시·군까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제7차 과정 대비 시설투자는 초·중·고등학교를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집행에 대해서는 고등학교까지는 본청에서,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추진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2000년도에 초·중·고등학교 합쳐서 269실, 2001년도에는 323실을 확충하였고, 2002년도에는 초등학교 56실, 중학교 48실, 고등학교 82실 등 186실을 확충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만재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청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궁금사항은 그때그때 보충질의를 하시는데, 또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

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

● 조일환 위원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 의장 손만재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조일환 위원

의장님, 제가 전화를 잠깐 하는 중이었는데 보충질의 조금만 하게 시간을 주세요.

● 의장 손만재

제가 말씀드리고요.

● 조일환 위원

예

● 의장 손만재

오늘 교육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교육청 측에 반영이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일환 위원께서 잠깐 나가시는 바람에 보충질의를 못하셨다고 그러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으신 다음에 다음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 조일환 위원

제가 자꾸만 여러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까 조 국장님 말씀이 농담이지만 부담이 많이 가요. 그래서 어느 일본 사람이 한국을 평가할 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책을 썼다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공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업무계획에 나오지 않은 사항 몇 가지 드릴테니까, 이 성과급에 관계 문제가 됐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기는 만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라도 좋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하는 것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고교입시제도입니다, 고교입시제도, 이게 어디는 끝나고 그랬다는데 이게 지금 평준화 돼 있고, 또 뭘니까 시험 봐서 들어가는, 그 미안합니다만은 비평준화도 있어서 비평준화 지역의 문제가 많다는 학부형의 원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능력에 정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 끝나면 갈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우수한 학생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들은 게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충주고등학교 같은 데가 금년에 정원미달이에요, 맞습니까?

● 교육국장 조봉래

맞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래 왜 그러냐, 이걸 큰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방치하면 안된다, 왜 그러냐, 거기 갔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2차로 갈 데가 없어, 미리 꼭 낮춰가지고 가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못 쳐다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연구해 주세요. 그래서 좀.....

그 다음에 제가 늘 평소에 느끼는 겁니다.

경찰서나 파출소 같은 데는 공통으로 된 명패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 명패는 말이에요 아주 이게 다양합니다. 개성이 그래서 모르겠는데 어디 가보면 정말 '저게 학교의 명패인가' 페인트부터 무슨 디자인서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일해서 파출소처럼 우리 공모를 해 가지고 초등학교는 이 명패 아니면은 중학교, 그래서 통일하면 돈도 얼마 안 들고 우리 교육기관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가, 어디는 정말 생피합니다, 제가 솔직히 표현하면.

그 다음에 수능모의고사 제도, 이것 때문에 지금 학부모들이 아주 열이 났습니다. 이번에 수능시험 때문에 그래요, 수능시험 때문에. 쉽게 낸다고 그러니까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그래 지금 학원에 다 몰려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모의고사를 억제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자율로 좀 풀어주는 게 잘하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뭐 시간도 없으니까 나중에 말씀해주세요. 조금 부탁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참 제가 이 말씀드리는데 대단히 어려운 얘긴데, 우리가 공모제 아까 하셨던 말이에요. 공모제는 뭐니까, 창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욕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응모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갔다, 갔는데 그것이 건강이 도저히 안돼, 또 자신도 안된다고 그랬어, 그렇다면은 공모제에 어떤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심지어 동생이 뇌물을 먹어도 총장이 사퇴를 합니다, 규정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의적인 문제다 이거여, 대학의 지도가 뭐니까, 명명지덕이예요, 명명, 밝은 덕을 더 밝게 해야 된다. 우리 교육계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또 그 건강 시비 때문에, 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육자의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한니까, 검사가 피고한테 “당신 건강하면서 왜 엉그럭 쓰느냐 말여” “당신 이런 약을 왜 먹었느냐 말여” 얼마나 제가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한지, 그래서 이런 정도의 건강이 나쁘다면은 제가 법을 떠나서, 법을 떠나서 직위해제를 하든가,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가, 그

럼 그 교육청에 여태까지 감사도 안하고, 작년에도 안하고 올해도 10월달에 하겠다면 거기에 행정적으로 누수가 되고, 자,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연두하실 때 여러분이나 저나 참, 저는 그것을 보고, 물론 감기 때문에 목도 쉬셨는데 그전처럼 당당한 모습 하나도 없잖아요. 여유있는 유머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뭐니까, ‘아, 정말 큰일이다.’ 그런데 지금 그 교육청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근무상황부를 보니까 법원에 갔다, 검찰에 갔다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공부가 그래서 뭐니까, 공부. 이것을 볼 때에, 이것을 볼 때에 이 교육청에 소위 명령의 계통의 권위가 무너졌다.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업무상에 누수가 생기고 비능률이 생겨, 그거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교육의 질의 저하돼, 그 피해는 누구니까, 학생입니다. 우리는 공인이기 때문에 나 하나가 당신한테 할 말은 내 어렵지만은,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게 아무개 하고 재판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봐주는 식이다, 이런 누명을 왜 쓰느냐, 그래서 차제에 우리 정말 권유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 게 이 인사문제는 제가 알기로 우리 교육감님께, 부교육감님께 위임사항인줄 아시는데, 정말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교육수요자가 납득이 갈

[제137회-제1차 본회의]

수 있는 어떤 행정조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 의장 손만재

답변을 바라시는 건 아니죠?

● 조일환 위원

예

4.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1회추가경정예산편성보고의건

(17시 35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1회추가경정예산편성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이해를 하신다면 여기서 할까요?

● 의장 손만재

예

(기획관리국장 자리에서 일어남)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재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

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지난 12월 1일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친 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 40억 3,896만 6,000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교육여건개선 계획에 의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실증축비 등 127억 7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제3-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기, 그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723억 1,040만 5,000원에서 86억 6,803만 4,000원이 감액된 9,636억 4,23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식정보화 사회의 학교 모형기준 및 연계 학교 운영비 1억 8,296만 6,000원, 서원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신축 등 6건, 특별교부금사업비 38억 5,6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사업시기 부족으로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교육여건개선 계획에 의하여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2002학년도부터 35명으로 감축하려 하였으나 실업계 고등학교의 재학생에 대하여는 이를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교실

중축비 139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합니다.

교실 13실 중축비 및 교실내부비품비 등 12억 3,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전체적으로 교부금 127억 700만원이 감액되어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17시 39분 산회)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에 앉음)

- ▶ 참 조 :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경예산 편성 개요(별첨 4)

(끝에 실음)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1회추가경정예산서(별책 1)

● 의장 손만재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3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송진하 부의장님과 김광수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3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

[제137회-제1차 본회의]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3명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조봉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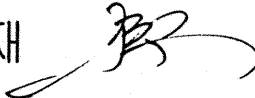
- ▶ 의사일정안(별첨 1)
- ▶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별첨 2)
- ▶ 서면답변서(별첨 3)
-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1회추경예산편성개요(별첨 4)


※ 별 책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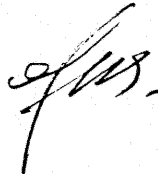
-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1회추가경정예산서(별책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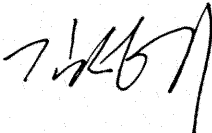
제13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2. 1. .

의 장 손 만 재 

위 원 송 진 하 

위 원 김 광 수 

의사국장 김 성 기 

議 事 日 程 (案)

第13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臨時會)

2002. 1. 17.(1 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1月 17日(木) (11:00)	<p><input type="checkbox"/> 開 會 式</p> <p>[第1次 本會議]</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제13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2. 1. 17.(1 일간)2.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담당관 · 국별 보고 및 질의)3.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3-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보고의 건 <p><input type="checkbox"/> 閉 會</p>	

第 1 3 7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臨時會
2002. 1. .

2002 年度

主要業務計劃

忠清北道教育廳

차 례

<input type="checkbox"/> 일반 현황	93
<input type="checkbox"/>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94
<input type="checkbox"/> 주요업무 추진계획	95

공보감사담당관

1. 교육활동 홍보	96
2. 2002년도 행정감사	96
3. 감사사례교육	97
4. 자체감사담당공무원 세미나 개최	97
5. 취약분야 기동점검반 운영	97
6. 공직자 재산등록	98

교 육 국

초 등 교 육 과

1. 밝은 사회 만들기 실천	100
2. 아가모 운동의 확산	100
3. 기초학력의 강화	101

4. 정책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102
5. 학생 활동중심의 수업방법 확산	103
6. 영재교육의 다양화	104
7.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충실	104
8. 교원 존경 풍토 조성	105
9. 특수교육의 기회 확대	106
10. 공정·투명한 인사행정	107

중 등 교 육 과

1.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 전개	108
2.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108
3.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평가	109
4. 독서교육의 활성화	110
5.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110
6. 학생 자치 능력의 제고	111
7. 1공무원 1학생 결연제 확대	111
8. 내실있는 봉사활동 전개	112
9. 진취적인 “충북 학생상” 정립	112
10. 학생 동아리 활동의 강화	113
11. 사랑나눔 대화마당 운영	113
12. 담임·통신장학제 운영	113
13. 적극적인 통일외지 함양	114
14. 생활 외국어 교육의 강화	114
15. 교과 수업개선 연구회의 활성화	115
16. 교과교육연구회 활성화	115
17. 2002년도 신규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116
18. 학교장 및 교사 초빙제 확대	116
19. 인사공모제 운영	116
20. 연수기회 확대	117

21. 연수이수제 실시	117
22. 교과소양 인증 취득 권장	117
23. 교원단체와의 협력 체제 구축	118

과학실업교육과

1. 기초 과학교육의 충실	118
2. 과학 수월성 교육의 추구	119
3. 환경보존의 생활화	120
4. 직업교육의 현장성 제고	120
5. 전통예절교육 실시	122
6. 양성평등을 존중하는 교육	122

교육정보화과

1. 정보화 기반 구축 및 활용 활성화 추진	123
2. ICT 활용교육 활성화	125
3. 교육행정업무 전산화 추진	126
4. 교육정보화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127

평생교육체육과

1. 평생교육의 진흥	128
2. 학생 수련활동의 활성화	129
3. 청소년 단체활동의 강화	129
4. 학교체육의 활성화	130
5. 학교보건 관리의 충실	131
6. 학교급식 운영의 충실	132

기 획 관 리 국

총 무 과

1. 각급학교 당직근무제도 개선 135
2.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135
3.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방안 수립 추진 136

기 획 관 리 과

1. 주요업무계획 추진 137
2. 지역교육청 평가 137
3. 『교육정책 창안제』 운영 138
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초·중·고 학생수용계획 수립 138
5. 소규모학교 개편 141
6. 교육재정 및 학교회계의 효율적 운영 141
7. 교원업무경감 10대 방안 적극 추진 142
8. 『일하는 방식』 개선 10대 추진과제 실천 143

학교운영지원과

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144
2.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내실화 144
3. 물품구매 단가결정 및 일괄 구매입찰 지속 추진 144

4. 스쿨뱅킹제 도입 정착	145
5. 자체수입의 증대	145
6.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146
7.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	146

시 설 과

1. 교육환경 개선사업	147
2. 학교시설의 다양화·유연화	147
3. 서해수련원 신축공사	148

I. 일반 현황

□ 行政 組織

- 기 구 도 교육 청 : 2국, 1담당관, 9과
 지역교육청 : 11
 직 속 기 관 : 5

- 정 원 정 무 직 : 1명
 교육전문직 : 195명
 교 원 : 12,670명
 일 반 직 : 1,101명
 기 능 직 : 1,723명 계 : 15,690명

□ 學校 現況

구 분	학 교 수	학 생 수	교 원 수
합 계	783	267,309	12,670
유 치 원	333	18,183	945
초 등 학 교	246	126,177	4,925
중 학 교	116	58,828	3,159
고 등 학 교	76	61,119	3,359
특 수 학 교	9	1,443	241
기 타	3	1,556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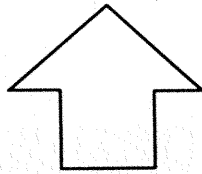
□ 財 政 現況 : 豫算總額 8,869億 원

세 입	세 지
○ 자 체 수 입 : 642억원 (7.2%)	○ 급 여 복 지 비 : 5,512억원(62.2%)
○ 의 존 수 입 : 8,227억원 (92.8%)	○ 학 교 교육비 및 기타 : 3,357억원(37.8%)

II.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教育目標

21世紀를 主導하는
創意的이고 참된 人材 育成



教育施策

1. 더불어 살아가는 人性 教育 強化
2. 창의성 교육으로 競爭力 伸張
3. 함께 하는 教育共同體 確立
4. 자긍심이 충만한 教職 風土 定着
5. 쾌적하고 질 높은 教育 與件 造成

III.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보감사담당관

1. 교육활동 홍보

가. 목 적

-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에게 충북교육의 주요업무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

나. 추진계획

- 충북교육소식
 - 격월제 발행 : 연 6회(매 9,000부)
- 충북교육 홍보책자 발간 보급
 - 연 1회(2,000부)

2. 2002년도 행정감사

가. 목 적

- 교육행정 운영의 합법성·효율성을 제고하여 국정개혁 과제를 원활히 수행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 구축

나. 추진계획

- 종합감사
 - 대상 : 38개기관(교육청 5, 직속 1, 고등학교 25, 특수학교 4, 법인 3)
- 부분감사
 - 자체선정 및 감사원에서 지정한 취약분야를 추후 결정하여 실시
- 공직기강 감사 : 수시실시

3. 감사사례교육

가. 목 적

- 부정·비리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
- 회계실무자의 행정능력 배양
- 성실공직자 보호 및 공직사회 창의성·활력 제고

나. 추진계획

- 시 기 : 2002년 12월중
- 대 상 : 지역교육청 자체감사담당공무원 및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회계실무자
- 내 용 : 2002년도 감사지적사례

4. 자체감사담당공무원 세미나 개최

가. 목 적

- 자체감사운영의 효율화 도모 및 전문성 제고
 - 감사요원의 자질과 감사기법의 향상 방안 모색
 - 자체감사 결과 우수사례 및 문제점 발표·협의

나. 추진계획

- 시 기 : 2002년도중 분기별 1회
- 대 상 :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 35명

5. 취약분야 기동점검반 운영

가. 목 적

- 취약업무·부서에 대한 지속·집중적인 감시활동
- 감사인력 활용 극대화로 감사사각지대 해소 및 예방

나. 추진계획

- 시 기 : 수시실시
- 대 상 : 매년 중점점검 대상분야 선정 및 제보, 정보, 여론화 대상기관

6. 공직자 재산등록

가. 목 적

-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재산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 확립

나. 추진계획

- 대 상 : 100명
 - 공 개 : 8명(교육감, 교육위원 7명)
 - 비공개대상자 : 75명
 - 의무면제대상자 : 17명(수시 변동)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연 2회

교육목

초등교육과

1. 밝은 사회 만들기 실천

가. 목 적

- 이웃 사랑과 타인 존중하는 태도와 함께 명랑한 사회 조성
- 바르고 고운 말 사용으로 이웃과의 다정하고 원만한 관계 형성

나. 추진계획

- 밝은 사회 5운동 전개
 - 내가 먼저 '미소짓기' '인사하기' '양보하기' '도와주기' '약속지키기'
 - 학교, 가정, 사회로 확산
- 좋은 이웃되기 추진
 - 친구, 이웃사귀기 및 칭찬하기
 - 가족신문 만들어 나눠 보기
- 월드컵 민주 시민 운동 전개
 - 질서 지키기 슬선수범
 - 외국인에 대한 친절 생활 내면화

2. 아가모 운동의 확산

가. 목 적

- 아가모 운동을 통한 기본 질서의 확립, 경제 극복의지 배양
- 자원의 중요성을 알고 건전한 절약생활 태도 함양

나. 추진계획

- 아가모 운동의 전개
 - 아끼기, 가르기, 모으기 실천 내면화
 - 아가모 운동에 대한 캠페인, 홍보 활동 전개
- 아가모 운동 활성화
 - 각급학교별 환경·경제 살리기 운동 지속적 추진
 - 아가모 운동 실천 발표대회 개최
 - 아가모 운동 실천사례집 6집 발간 배부
 - 사이버 아가모 백일장 개최
 - 지역교육청별 '아가모 장터' 운영
- 아가모 운동의 사회화
 - 아가모 운동 도지정 시범학교 운영
 - 아가모 운동 시범단지 운영
- 소요예산 : 5,800천원

3. 기초학력의 강화

가. 목 적

- 모든 학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학력 형성
-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의 책무성 제고

나. 추진계획

- 표준화 및 판별도구 및 진단도구 활용
 - 교육인적자원부 개발 진단도구 활용
- 기초학력(3R's) 책임지도제 운영 : 교당 1명
 - 책임지도 수당 (초 : 200천원, 중·고 : 300천원 확보)

-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 11종
 - 지역교육청 중심학교 :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자료 공유
- 도교육청 지정 '기초학력' 시범학교 운영
 - 도교육청 지정 시범학교 : 목행초등학교
-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연수회 실시 : 초·중·고 교감 및 담당장학사 연수
- 기초학력 강화에 대한 홍보 : 가정통신문 교당 1회 이상
- 학습도우미제 운영 : 기초학력 부진학생 1인당 1명
- 지역교육청 중심학교 운영 : 11교

4. 정책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가. 목적

- 교육의 이념, 방침 및 기술을 연구 실천하는 현장교육의 질 향상 도모

나. 추진계획

- 연구학교 지정 : 공모제에 의한 자율적인 연구추진 능력고려 지정
 - 교육인적자원부지정 : 초 1, 중 1, 고 3개교
 - 도지정 : 유 3, 초 36, 중 21, 고 17개교
- 연구학교 운영방법 개선 : 교육과학연구원 주관
 - 운영 협의회 개최 : 2002. 3월중
 - 연구학교 운영지도 : 전반기, 후반기 각 1회 지도 실시
 - 교실수업 개선 및 주제해결 중심 운영
- 연구학교 운영보고회 개최
 - 공개보고회 : 종료되는 연구학교 34교
 - 중간검토회 : 공개대비 연구학교 48교
 - 운영결과의 일반화 및 확산 : 교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에 탑재

5. 학생 활동중심의 수업방법 확산

가. 목 적

-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 및 현장학습을 통한 다양한 학습방법의 확산

나. 추진계획

-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도)
 - 실천중심의 장학자료(지역교육청)
 -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학교)
 - 교과 교육과정의 운영(교사)
- 교실수업개선 시범학교 및 교육청 운영
 - 도지정 시범학교 : 초등 15교, 중등 8교
 - 시범교육청 : 6개 교육청
-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 대 상 :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실천 우수교사
 - 시 상 : 등급부여(실적점 인정)
- 수업연구 발표대회 개최
 - 방 법 : 학교별→지역별→도대회
 - 시 상 : 교육감 상장(실적점 인정)
- 수업개선을 위한 연구회 운영
 - 충북초등교육연구회 운영 : 교과 10개, 정책과제 10개 연구회
 - 11개 시·군별 연구회 조직·운영
- 교실수업개선 장학활동 강화
 - 교실수업지원단 사이버 장학 실시
 - 교실수업개선 도움자료 개발보급

- 자기수업비디오에 의한 자율장학
- 교실수업개선 Micro-idea 공모
- 우수수업교사 발굴 표창

6. 영재교육의 다양화

가. 목 적

-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
- 다양한 영재교육의 기반 구축

나. 추진계획

- 특수 재능아의 조기 발굴 지도
 -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신지식인 육성
 - 특기·적성 교육의 강화
- 영재교육의 기반 조성
 -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조직 운영
 - 영재교육 담당교사 및 전문직의 다양한 연수
 - 영재 판별도구 및 영재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소요예산 : 19,000천원

7.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충실

가. 목 적

-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 신장 교육의 기회 제공
- 방과 후 과외활동의 교내 흡수를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나. 추진계획

- 학생의 소질·적성 개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 학교장이 운영
- 저소득층·실직자·보훈대상자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의 교육활동비 지원
- 학교 전통과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국악 등 전통예술 분야육성
- 특기·적성교육의 질 향상을 주기적인 모니터링·평가·환류(Feed Back)
- 단위학교, 인근 학교간 연계, 교육청 주관의 청소년 축제문화로 승화
- 소요 예산 : 지원 총액 1,997,206천원
 - 초 1,130,150천원, 중 612,282천원, 고 243,674천원, 특수 11,100천원
 - 12학급 미만교, 12학급이상교 저소득층, 국악전통예술활동 지원

8. 교원 존경 풍토 조성

가. 목 적

-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교원 위상의 재정립
- 교원의 자긍심 제고를 통한 사회적 우대 풍토 조성

나. 추진계획

- 행복하게 가르치는 임무 전념화 추진
 - 일과 중 교사 동원 억제로 교육 본연의 임무 수행
 - 교재연구시간 최대 확보
- 교원의 자긍심을 높이는 사회풍토 조성
 - '자랑스러운 선생님 찾기' : 100명 선정기념패 증정
 - '올해의 스승' 교육인적자원부 추천 대통령 표창 : 1명
 - 스승 찾아주기 창구 운영
 - 옛스승 찾아뵙기의 지속적 전개

9. 특수교육의 기회 확대

가. 목 적

- 심신장애 영역별 특성에 알맞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대책을 적극 홍보하며, 장애 정도와 학습 능력에 알맞은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매체를 적용하여 특수교육의 질 향상 도모

나. 추진계획

- 2002년 특수교육대상자 완전 취학 추진
 - 홍보 21회
- 특수교육 상담실 운영
 - 21개소(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특수학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심의를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 연 4회 운영
- 통합교육의 적극 추진
 - 통합교육사례발표 개최 : 1회
- 재택 순회교육의 확대 운영
- 특수학교 7차교육과정 편성·운영
 - 9개 특수학교
- 특수교육 연수 추진
 - 특수학급,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담당교사 연수 1회
-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11개 지역교육청

10. 공정·투명한 인사행정

가. 목 적

- 능력과 실적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의 구축
- 교원 인사 시 사전 예고 및 순위 명부 공개에 의한 교원 인사의 투명성 제고
- 교원의 희망과 생활 근거지 배치로 생활 안정 및 사기 진작 도모

나. 추진계획

-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행정을 위한 인사정보의 공개
 -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공개 : 교감, 교장, 교육전문직
 - 교장, 교감, 유치원원장, 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 시·군간 전보순위 예고제에 의한 교원 인사
 - 인사 사전 예고제 추진(전보수급 예상현황 공개) : 매년 12월
 - 전보 희망 시·군의 순위 명부 공개 : 매년 1월
- 초·중등 교육전문직의 공개 전형 선발
- 교원 인사정보 공개
 - 홈페이지를 통한 인사편람, 인사업무서식, 공지사항 공개
 - 교원인사 정보공개로 인한 수시 인사 상담

중 등 교 육 과

1.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전개

가. 목 적

- 긍정적, 진취적인 자아의식 형성
-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시민정신의 함양
- 웃어른을 공경하는 효경의식의 고취
- 바람직한 사이버 시민윤리의식의 정착

나. 추진계획

-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가치관 갖기 지도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기록부 쓰기 지도
 - 경로효친의 날 운영
- 열린 토론마당시간 운영
- 사이버 대화방 및 상담실 개설, 운영
- 체험학습을 통한 바른 인성의 내면화
 - 가족과 함께 하는 봉사·체험학습 추진
 - 도·농간 교류학습 추진

2.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가. 목 적

-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
- 폭넓은 교양과 기초 능력 함양

나. 추진계획

- 학교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인정도서 및 지도 자료 개발 보급
- 제7차 교육과정 지원장학 협의단 운영
- 교육과정 연수의 지속화
- 학교 재량활동 운영의 내실화

3.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평가

가. 목 적

- 제7차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가방법 개선 및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보완
- 학력관리 체제 강화
- 다양한 시상제 운영

나. 추진계획

- 연수 및 연찬회 개최 : 평가담당교사 및 교장, 교감
-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보완
 -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 학업성적관리 체제 강화
 - 교과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의 내실
 - 단위 학교별 교직원연수, 학부모 연수
 - 공정하고 엄정한 학업성적 관리
- 다양한 시상제 운영

4. 독서교육의 활성화

가. 목 적

- 도서실의 환경 개선 및 도서 확충으로 독서교육 여건 조성
- 교과와 연계한 독서교육의 내실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 건전한 인성 함양과 평생학습 습관 형성

나. 추진계획

- 학교도서실(관) 운영의 내실 : 도서구입 예산 증액, 도서 기증 운동 전개
- 학교 도서실의 디지털자료실화 추진 : 7개교(초 2, 중 3, 고 2)
- 독서지도연구회 운영 : 독서 길잡이, 필독·권장도서 선정 및 안내
- 독서교육 연구학교 운영 : 3개교(초 1, 중 1, 고 1)
- 독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 : 독서 우수사례 발표, 독서축제, 독서의 달 행사

5.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가. 목 적

-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조성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인간의 존엄성과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인간 관계 조성
-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학생 선도

나. 추진계획

- 학생 상담 활동 강화
 - 학생의 진로 상담 활동 강화 :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 사이버 상담, 개별상담, 집단상담, 또래상담 등 상담 방식의 다양화
- 다양한 학교 폭력 신고체제 운영
 - 학생고충 신고/상담 대표번호 전화 설치 운영 (1588-7179)
 - 도교육청, 시·군 교육청 홈페이지 이용 '학교 폭력 신고센터' 및 '소리함' 운영

- 청소년지킴이제 운영 : 학부모, 지역인사 등 운영
- 학교폭력대책반 운영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설치 운영
- 학생자율선도반 운영 : 각급 학교 설치 운영, 좋은 친구되어 주기
- 사안 발생 시 「5자 회의」 상례화 : 학교, 학부모, 지역인사, 치안당국 등 구성
- 학생축제 문화 활성화 : 한마음 축제, 학생문화 거리축제 실시
- 1공무원 1학생 결연제 확대 : 소년·소녀 가장 및 결손 가정 학생

6. 학생 자치 능력의 제고

가. 목 적

- 학생의 자율적 참여와 의견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 정착

나. 추진계획

- 민주적인 학생생활규정 운영
 -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수렴된 학생생활규정 제정
 -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규정 보완
- 학생 자치활동 추진을 위한 학교문화 건설

7. 1공무원 1학생 결연제 확대

가. 목 적

- 소외되기 쉬운 학생에게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
- 학생 정서 안정을 통한 긍정적 자질 신장

나. 추진계획

- 교원, 전문직, 교육행정직과 결손가정 학생과 효율적 결연 추진
 - 3월중 결연
 - 결연 동아리 구성 운영
- 유관기관과 사회단체로 확산 추진 : 수시

8. 내실있는 봉사활동 전개

가. 목 적

-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
- 지역사회 이해 및 실천적 인성함양
- 민주시민의 기본적 자질 함양

나. 추진계획

- 「교육자원봉사제」 운영
- 「봉사활동정보안내센터」 운영의 활성화
- 「사랑의 봉사단」 조직·운영
- 봉사활동 시범학교 운영

9. 진취적인 “충북 학생상” 정립

가. 목 적

- 21세기를 주도할 ‘진취적이고 창의적이며 참된 인재’ 육성
- 충북학생의 적극적이고 당당한 이미지 확립

나. 추진계획

- 충북학생상 구현덕목 설정 운영
 - 진취성 함양, 창의성 신장, 성실성 고취관련 9개 덕목 설정
 - 충북학생상 구현 교육활동 전개
- 충북학생상 시상
 - 진취, 창의, 성실 부문 초·중·고 각 1명씩 시상

10. 학생 동아리 활동의 강화

가. 목 적

- 학생 소질계발 기회 부여를 통한 학교 건전문화 조성
- 학생 동아리 활동을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

나. 추진계획

- 1학생 1동아리 참여 권장
 - 학년초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 동아리 구성 운영
 - 동아리의 발표 기회 제공
- 연대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 동아리 활동의 부작용을 억제한 학교간 연대 동아리 활동 권장

11. 사랑나눔 대화마당 운영

가. 목 적

- 학생의 자율적 참여와 의견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 정착

나. 추진계획

- 민주적인 학생생활규정 운영
 -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수렴된 학생생활규정 제정
 -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규정 보완
- 학생 자치활동 추진을 위한 학교문화 건설

12. 담임·통신장학제 운영

가. 목 적

- 장학사별 담당학교 배정으로 학교 현장의 문제점 해결 및 상담 강화
- 개별장학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 및 교수·학습의 질적 향상 도모

나. 추진계획

- 다양한 방법의 담임·통신장학 실시
 - 학교방문, 전화, 우편, PC통신, FAX를 이용한 상담장학
- 학력제고와 학생 생활지도 강화
- 전산망을 통한 개방적인 의사소통 체제 구축

13. 적극적인 통일의지 함양

가. 목 적

- 국가안보와 남북한 화해·협력의식을 증진하는 건전한 통일관 정립
- 전문적인 통일교육 지도능력 배양

나. 추진계획

- 통일한마당 추진
 -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실감하는 교육활동 추진
- 통일체험학습 공모제 실시 : 우수학교 선정, 지원
- 통일교육담당자 연수 및 연찬활동 강화
- 자료 개발 보급 및 우수 사례 일반화
-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

14. 생활 외국어 교육의 강화

가. 목 적

- 의사소통능력 배양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
- 외국어 교육 기회 및 국제이해 교육 강화

나. 추진계획

-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활용 확대 및 회화 중심의 외국어 교육 강화
- 교원연수 강화(현지 어학연수, 심화연수 실시)
- 첨단 어학실 설치
- 외국어 경시대회 및 영어잔치 개최

15. 교과 수업개선 연구회의 활성화

가. 목 적

- 중등 전공 교과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사기 진작
- 세미나, 연구발표, 수업컨설팅, 교과교육 정보 교환을 통한 학력 제고

나. 추진 계획

- 중등 15개 전공교과 교원(교장, 교감, 전문직, 교사) 연구회 조직 : 3월중
- 교과별 세미나, 연구발표 등 개최 : 4-11월 중
- 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 : 11월 중

16. 교과교육연구회 활성화

가. 목 적

- 교원의 연구풍토 조성 및 전문성 제고
- 교실수업 개선, 수업방법 다양화를 통한 학력 제고

나. 추진계획

- 연구회(팀) 공모 및 선정 : 24개 중심학교 운영
- 연구우수교사 시상
- 결과 보고회 개최

17. 2002년도 신규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가. 목 적

- 공개경쟁 시험을 통한 우수한 중등교사 임용후보자를 선발

나. 추진계획

- 모집분야 : 추후 결정
- 모집인원 : 추후 결정
- 전형일정 : 2002. 11월 ~ 2003. 1월중

18. 학교장 및 교사 초빙제 확대

가. 목 적

- 교직사회의 경쟁력 확보와 학교 경영의 질 향상

나. 추진계획

- 학교장 초빙제 : 9개교(초 4교, 중 3교, 고 2교) 실시예정
- 교사 초빙제 : 27개교(초 11교, 중 10교, 고 6교) 실시예정

19. 인사공모제 운영

가. 목 적

- 진취적이고 능력있는 교육공무원을 공개적으로 발탁하여 교육개혁 추진
-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여 충북교육의 위상 제고

나. 추진계획

- 2002년도 실시교육청 추후선정 예정

20. 연수기회의 확대

가. 목 적

-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나. 추진계획

- 연수체제의 개선 및 운영의 내실화
- 제7차 교육과정 교원연수 확대 실시
- 정보화 연수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21. 연수이수제 실시

가. 목 적

-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고 재교육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 제고

나. 추진계획

- 연수 대상자 선발 적정
- 일정기간 연수이수제 지속 실시

22. 교과소양 인증 취득 권장

가. 목 적

-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위 및 자격취득기회 제공

나. 추진계획

- 모든 교원에게 석사학위 취득 권장
- 교과지도 관련분야 신기술 자격 취득 지원
- 복수전공 및 부전공 자격연수 확대

23. 교원단체와의 협력 체제 구축

가. 목 적

- 학습권 보호와 노사분규 없는 교육행정 구현
- 교원의 복지 증진과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교섭·협약

나. 추진계획

- 교원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2002년도 단체교섭 진행
 - 예비교섭 : 5~6회
 - 본교섭(본교섭소위원회포함) : 8회
 - 단체교섭협약 조인식
- 충청북도교원단체연합회와 2002년도 단체교섭·협의
 - 예비교섭·협의 : 3~4회
 - 실무소위원회 : 5~6회
 - 교섭합의서 작성
- 노사관련 연수
 - 관리자(교장,교감,전문직) : 1회
 - 일반교사 및 신규임용자 : 2회

과학실업교육과

1. 기초과학교육의 충실

가. 목 적

- 과학적 탐구력 신장을 위한 실험실습과 현장학습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나. 추진계획

-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중심의 탐구활동 수업 전개
- ‘○ 초·중등교사 과학과 실험연수
 - 초등교사 : 480명, 중등교사 : 80명, 계 560명
- 과학실험보조원 배치
 - 학교회계 예산에서 초등학교 18학급 이상 실험보조원 87명 임용
 - 중등학교는 자체 학교회계 예산 형편에 따라 교당 1명 이상 확보 권장
- 과학과 현장학습 지원을 위한 교육과학연구원 및 학교과학관 운영의 활성화
 - 과학전시관 운영 : 유·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
 - 1일 탐구교실, 별의 축제, 과학교육(과학전람회 외 4종), 이동과학교실 45교 운영
- 자연사과학관 운영
 - 중평중학교 자연사과학관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

2. 과학 수월성 교육의 추구

가. 목 적

- 과학 수월성교육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과학영재 육성

나. 추진계획

- 과학영재교실 운영
 - 지역교육청별로 중학교 2학년 과학영재 학생 대상으로 1개반 운영
- 과학영재 학생의 과학기술원 및 청주교육대학과의 연계 교육
- 여름과학 캠프 운영
 - 학교과학관의 과학영재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중 운영
- 발명교육의 강화
 - 발명공작교실 운영 : 5실 운영(삼원초, 삼산초, 남천초, 청주중, 괴산북중)

3. 환경보존의 생활화

가. 목 적

- 환경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 함양으로 환경보전의 생활화

나. 추진계획

- 환경교육 방법의 개발
 - 도지정 시범학교 운영 : 봉명초 유치원, 동광초
 - 환경교과 선택 권장, 환경장학자료 활용 강화
- 환경관련 학교행사 추진 및 참여 확대
 - 교내·외 환경 글짓기, 그리기, 독후감 등의 행사 추진
 - 국토대청결운동 참여, 환경보전 체험학습 실시
- 환경보전의 생활화
 - 환경보전 봉사단 조직 운영
 - 쓰레기 줄이기, 안버리기, 치우기 운동 전개, 물 아껴쓰기 지도

4. 직업교육의 현장성 제고

가. 목 적

- 실업교육의 내실화·전문화로 실업계 경쟁력 확보
- 직업교육의 다양화로 정보화된 산업체 현장 적응력 제고

나. 추진계획

- 산업구조에 부응하는 실업계고교 체제 개편
 - 교명변경 : 5교(청주대성고, 충북인터넷고, 보은정보고, 학산정보고, 영동인터넷고)
 - 운영체제 개편 : 2교[충북인터넷고(특성화고), 청주대성고(인문계고 전환)]
 - 학과개편 : 6교(13개학과를 10개학과로 통폐합 개편)
-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시범학교 운영 : 3교
- 충북도교육청 직업교육 시범운영 : 1교
- 일반계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교 지원 : 16교
 - 비 진학생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실시
- 실업계고교 전문교과교사 부전공 연수 확대 : 7교과 70명
- 「2+1」, 「2+2」 연계교육과정 운영 : 31교
- 실업계고교 공동실습소 운영 : 3 개소(청주농고, 청주기계공고, 충북공고)
- 공동목장 운영 (청주농고)
- 산학 겸임교사 및 우수 졸업생 활용 직업교육 실시
 - 산학겸임교사 활용 (33교 165명)
 - 우수졸업생 활용 직업교육 실시(33교 200명)
- 실업계 전문교과교사 현장직업능력 전문성 제고
 - 전문교과교사 산업체 현장연수 (5년 주기)
- 실업계고교생 기능경기 대회 참가 : 전문 기능인 양성
 - 제31차 한국 영농학생 전진대회 참가
 - 제3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참가
- 직업교육 종합축제 개최
 - 중·고등학생 진로 및 직업 체험 학습장 제공
 - 청주, 충주 분산개최 예정(2002. 10예정)
 - 중학생, 실업계고학생 및 교사 작품전시 7개분야

- 교육청 홈페이지 활용 실업계고교 안내 홍보(33교)
- 직업교육 센터 운영
 - 실업계고교 운영 : 초·중·고 학생 및 지역주민
 - 직업교육 프로그램 및 학생들의 체험학습장 운영
- 시험·실습기자재 설비기준 조정
- 시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재배치

5. 전통예절교육 실시

가. 목 적

- 체험학습을 통한 기본 생활 습관과 전통예절 습득으로 바른 가치관 형성

나. 추진계획

- 생활관 및 예절실 운영으로 전통예절 교육 실시
 - 생활관 교육 : 생활관 보유교에서 실시
 - 기타 학교 : 예절실 운영(남·여학생 교육 실시)
 - 가정교과 이수하지 않는 고교 및 생활관 미 설치교 : 학생종합야영장 생활관 위탁 교육
 - 예절교육 장학 자료 활용 강화
- 향교 활용
 - 지역사회 향교 시설 활용

6. 양성평등을 존중하는 교육

가. 목 적

- 양성평등의식 고취와 성희롱 등 남녀차별을 예방하여 명랑한 교육환경 조성

나. 추진계획

- 양성평등의식 고취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따른 연수
교직원, 학생, 학부모 교육 : 연 2회 이상
- 성희롱 예방 교육
 - 교직원, 학생, 학부모 연 2회 교육 : 자체강사 및 외부강사 초빙교육
 - 고충처리방안 마련 : 상담원 양성인(남녀 각 1인) 조직 및 처치 절차마련
- 학교 성교육 활성화
 - 성교육 지도 지침서 활용 : 학교 성교육 연간 계획 수립
 - 학교 성교육 실시 시수 확보 : 재량활동 및 관련 교과 이용하여 10시간 내의 시수 확보
 - 각급 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 지정 : 1교 1명

교육정보화과

1. 정보화 기반 구축 및 활용 활성화 추진

가. 목 적

- 정보화 기반 구축의 고도화 추진으로 OECD 선진국 수준의 교육 환경 조성
- 정보화 기반의 효율적 활용으로 수업 방법 개선

나. 추진계획

- 교단선진화 지속적 추진
 - 교실의 노후 컴퓨터, 주변기기, S/W 교체 및 모둠학습자리 구축
 - 2002. 3. 1. 증설학급 ICT활용교육 기반구축 : 434학급

- ICT활용 교육 시범단지 및 모델학교 운영
 - ICT활용 학교교육활성화 시범단지 운영 및 실천사례 일반화(4개단지)
 - ICT활용 수업 모델학교 운영 및 실천사례 일반화(29개교 75개학급)
- 교육용 콘텐츠 개발·보급
 - 제 7차교육과정용 전국 시·도 공동 분담 사업 (2종 도서 콘텐츠 개발·보급)
 - 자체 정책과제 30편 및 프리젠테이션자료 3,000편 개발·보급
- 실습용·교원용 컴퓨터 보급
 - '98년 이전 보급된 노후 컴퓨터 2,374대 교체
- 저소득층 자녀 통신비 및 리스료 지원
 - 저소득층 자녀 1,946명 리스료 지원(7억 4천만원)
 - 저소득층 자녀 및 소년·소녀 가장 2,217명 통신비 지원(438,966천원)
- 정품 S/W 보급
 - 대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협약된 교육용 S/W구입비 지원(387,002천원)
 - 구입 방법 : 각급학교 구입 신청에 따른 구매·활용
- 교육용 S/W 보급
 - 대상 : 학교별 교수·학습에 필요한 S/W 구입비 지원(335,405천원)
 - 구입 방법 : 각급학교의 구입신청에 따른 구매·활용
- ICT활용 장학자료 개발·보급
 - 영역 : ICT 활용 장학자료 5, 정보통신윤리자료 1(37,200천원)
 - 보급 : 초·중·고·특수학교 및 관련 기관
- 초·중등학교 전산 보조 인력 활용
 - 채용인원 및 기간 : 100명(5개월)
 - 학교 정보화 업무 활성화를 위한 업무 보조

2. ICT 활용 교육 활성화

가. 목 적

- ICT 활용 교육 연수의 활성화로 교육정보화 마인드 확산
- ICT 활용 능력 신장으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 다양한 정보화 행사로 정보 마인드 확산

나. 추진 계획

- 교원 정보화 교육 추진
 - 전교원의 33% 이상 연수 실시 : 10개 과정 4,073명
- 학부모 정보화 교육
 - 시범학교 39교 선정 지원 : 초 22교, 중 11교, 고 6교 계 39교
 - 1교당 2,140천원씩 지원
- ICT 활용 교과 연구회(컴퓨터관련 동호회) 활동 지원
 - 9개 동호회 선정·지원 : 1 연구회(동호회)당 2,000천원 지원
- ICT 활용 교육 시범학교 운영 지원
 - 1교당 6,000천원씩 지원 : 초 3교, 중 1교, 고 1교 지원
- 정보화 교육 행사 추진
 - 제16회 충북학생정보올림피아드 추진(4월중)
 - 제3회 충북컴퓨터꿈나무축제 및 교원홈페이지공모전 추진(10월중)
- ICT 활용 교육 성공 사례 발굴·지원
 - 12교 선정 지원 : 1교당 5,000천원씩 지원
-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제」 추진
 - 연 1회 추진 : 참가 인원 1,200명 이상 목표

- 학교생활기록부 전산 자료 제작
 - 2002년도 중·고등학교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 전산 자료 제작
 - 2003학년도 대입전형용 학교생활기록부 전산 자료 제작
- 지역 ICT 교육 지원 센터 운영 지원
 - 지역교육청당 10,000천원 지원
 - 지역 특성화 ICT 교육사업 우수 사례 공유·일반화
- 학교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의 활성화
 - 학교 홈페이지의 교육적 활용 제고
 - 홈페이지 정기 점검

3. 교육행정 업무 전산화 추진

가. 목 적

- 교육행정 관련 기관 및 업무간 연계성과 정보 공동 활용
- 교육행정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
- 디지털 교육행정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으로 전자 정부 구현

나. 추진계획

-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 기획, 교육·장학, 보건·체육, 교원인사, 일반직 인사, 급여, 재정, 시설, 법인, 기타행정(10개 영역 19개 분야 등) 교육행정 정보화
- 「교육행정업무전산화」 추진
 - 교육행정전산망 운영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 정보화 기기 유지보수 지원
 - 도내 각급학교 정보화 기기 유지보수비 지원 : 교당 30만원, 급당 4만5천원

-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213교에 유지보수비 교당 119만원 지원
-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지원
 - 초·중·고·특수학교 389교에 인터넷 통신비 지원

4. 교육정보화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가. 목 적

-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ICT 활용 수업 활성화
- 제7차 교육과정 콘텐츠 보급으로 교실수업방법 개선

나. 추진 계획

- 교육정보화 사업 지원 및 연수
 - 교육정보화 당면 문제 학교 방문 지원
 - 교육정보화지원센터를 이용한 ICT활용 교육 연수
- EDULOVE 9개 포털사이트 운영
 - 인터넷 교육방송 VOD 자료 탑재·운영
 - 원격 화상 학습 프로그램 지원
 - 사이버 선생님제에 의한 학생 원격교육
 - 전람회 및 공모전 우수 웹자료 제공 및 교육용 S/W 목록화
- 교육용 S/W 개발·보급
 - 제 6회 선진충북교육 S/W전람회 개최 및 우수 자료 일반화(약 350편)
 - 제 11회 전국 S/W공모전 충북예선대회 활성화

평생교육체육과

1. 평생교육의 진흥

가. 목 적

- 지역주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학습기회 확대
-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생교육 이념 구현

나. 추진계획

- 학교의 지역사회 평생교육센터화
 - 학교의 인적·물적자원 개방으로 평생학습사회 구현
 - 학교당 2개 강좌 이상 운영토록 지도(전 학교를 대상)
 - 평생교육 시범 및 중심학교 운영 : 도지정 1교, 지역교육청 지정 11교
 - 평생교육 선도교 육성 운영 : 지역교육청 공모 22교
- 공공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 충청북도중앙도서관
 - 중앙 평생교육센터 및 지역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체제 활성화
 -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교육
 - 평생학습 정보자료 발간 및 각종 자료 수집·개발·제공
 - 지역평생학습관 운영 : 14개 기관(공공도서관 및 학생회관)
 - 각종 평생교육강좌 운영·확대 : 5개 강좌이상 운영토록 지도
 -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문화센터로써 최신 지식·정보 제공

2. 학생 수련활동의 활성화

가. 목 적

- 개척정신과 호연지기의 기상 함양
- 공동체의식 함양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
- 적극적인 기질을 지닌 진취적인 청소년상 구현

나. 추진계획

- 각급학교 학년, 학급, 동아리별 수련활동 실시
- 다양한 수련활동 전개
 - 학생야영장 등 다양한 수련시설 활용
 - 특성화 수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 테마식 수련활동 전개
 - 소집단별 체험활동 중심의 야영수련 전개

3. 청소년단체활동의 강화

가. 목 적

- 건전한 단체활동을 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 도모
- 다양한 집단활동을 통한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함양
-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 고취

나. 추진계획

- 1학생 1교사 1단체 가입활동 권장
- 청소년단체활동의 활성화 추진
 - 청소년단체 지역대 조직 운영 : 지역인사 지도자 활용
 - 청소년단체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 지도교사 연수기회 확대
- 불우 청소년의 단체가입 활동 확대
- 각 단체별 가족 캠프 및 봉사활동 적극 전개

4. 학교 체육의 활성화

가. 목 적

- 학생 중심의 체육교육과정 운영으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 도모
- 1인 1운동의 생활화와 체육동아리 활동 활성화로 기초체력 향상
- 1교 1특색운동(전원체육) 활성화로 건강증진 및 공동체정신 함양

나. 추진계획

- 학생중심의 체육교육과정 운영 : 연 2회(매학기)
- 1인 1운동의 생활화 운동 전개
 - 1인 1체육동아리 가입 및 방과 후 체육활동 참여 : 전교생 권장
 - 특기·적성 체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교당 2종목 이상
- 1교 1특색운동(전원체육) 실시
 - 지역 여건과 학생 선호도를 고려한 1교 1특색운동 실시 : 전원체육으로 120일 이상
- 지정종목 육성 및 각종체육대회 운영
 - 37종목 97팀 초·중·고 연계육성
 - 28종목 66명 순회코치 임용·배정
 - 충북소년체육대회, 클럽대항 학교간 경기대회, 종목별 교육감기대회 개최
 - 제31회 전국소년체전 및 제83회 전국체전 참가

5. 학교보건 관리의 충실

가. 목 적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증진
- 학교보건교육을 통한 자기스스로의 건강관리 능력신장 도모
-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를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

나. 추진계획

- 보건·위생교육 강화
 - 담임·교과담당 교사 또는 양호교사가 관련교과 보건교육
 - 생활보건교육을 통한 자기건강관리 능력 배양 및 건강생활 습관화 지도
 - 도지정 보건교육 시범학교 운영 : 1교
- 보건전문인력 활용 및 보건시설 확충
 - 학교의사·약사 위촉 활용 : 2002. 3월중
 - 양호교사 배치 : 291명(초 185, 중 50, 고 47, 특수 9)
 - 양호교사 순회근무 실시 및 양호업무 담당교사 지정 운영
 - 학교보건실 확충 및 개선
- 학생 신체검사 및 성인병 예방
 - 학생 신체검사 : 체격·체질·체력검사(표본학교 지정 : 30교)
 - 학생 건강검진 : 고 1 종합건강검진 및 소변검사 외 5종
 - 상담 및 식사·운동요법 지도 등 성인병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 상수도 인입 또는 정수시설 설치 등 급수시설 개선
 - 지하수 사용학교 연 4회 이상 수질검사
 - 저수조 연 2회 청소 및 월 1회 위생점검
 - 온수시설 확충으로 끓인 물 제공

-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관리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운영 및 심의기능 강화
 - 학교보건법상 이전·폐쇄 대상업소 조기 정비 : 35개 업소
 - 학교주변 유해업소 실태점검 및 지도단속 강화 : 월 1회

6. 학교급식 운영의 충실

가. 목 적

-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및 올바른 식생활습관 함양
- 국민식생활개선 및 국가 식량정책에 기여
- 학생들간 위화감 해소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나. 추진계획

-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 양질의 식재료 선정 및 구매
 -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 급식운영 공개 및 학부모 참여 확대
 - 급식의 질 향상을 통한 급식이용율 및 만족도 제고
 - 도지정 학교급식 시범학교 운영 : 2교
-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 학교급식 HACCP시스템(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 급식관계자의 정기적 위생·안전 교육실시 : 연 2회 이상
 -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 연 2회 실시
 - 식중독 발생 대응체계 확립

○ 생활교육으로서의 학교급식 정착

- 학교급식의 역할 홍보
- 초·중·고 연계급식을 통한 식생활 습관 지도강화
- 담임교사 임장 식사를 통한 급식시간 교육적 운영
- 학교·가정과의 연계교육 및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중식지원사업 추진

- 지원대상
 - 학기중 :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학교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
 - 토·공휴일 및 방학중 :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점심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
- 지원일수 : 연중 365일(학기중 180일, 토·공휴일 및 방학중 185일)
- 지원단가
 - 학기중 : 1인 1식당 초등학생 1,500원, 중·고등학생 2,000원
 - 토·공휴일 및 방학중 : 1인 1식당 2,500원

기 획 관 령 국

총 무 과

1. 각급학교 당직근무제도 개선

가. 목 적

- 교원들의 교수-학습활동지원
- 교직원 사기진작 및 당직근무 부담 경감

나. 추진계획

- 시행일 : 2001.3.1.부터 2004년까지 년차적으로 확대실시
- 2002년도 당직근무제도 개선 대상학교
 - 초등학교 : 11학급 이하
 - 중 학 교 : 8학급 이하
 - 고등학교 : 6학급 이하
- 개선방법 : 당직면제, 재택당직 및 인력경비업체 용역 등
- 향후추진계획
 - 2004년도 도내 전학교 당직근무 제도 개선 100% 완료

2.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가. 목 적

- 퇴직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결원의 적기 충원을 통한 기관운영 정상화 도모

나. 추진계획

- 교육행정 지원체제 구축 및 학교 현장의 교육행정력 제고를 위한 증원 소요인력 확보
- 총원직렬 : 교육행정직 9급
- 총원인원 : 50명
- 총원방법 : 공개경쟁채용시험
- 채용시기 : 2002년도 상반기중
- 예산액 : 24,405천원
- 기타 :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정원 감축시 채용인원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3.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방안 수립 추진

가. 목 적

-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구현을 위한 행정개혁 방안으로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
- 지방교육자치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행정환경 조성
- 실적과 능력에 의한 공정한 인사운영 관행을 확립·정착

나. 추진계획

- 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실질심사 기능 강화
- 중요부서 직위 공개모집제 운영 검토
- 승진심사시 다면평가제 적용방안 연구·검토

기 획 관 리 과

1. 주요업무계획 추진

가. 목 적

- 교육지표 및 5대 시책 구현
-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구현
-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나. 추진계획

-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
 - 5장, 20개 대과제, 60개 중과제, 209개 단위사업

2. 지역교육청 평가

가. 목 적

- 지역교육청의 책무성을 제고하여 교육의 질 향상
- 지역교육청간의 선의의 경쟁 촉진으로 지원체제의 발전

나. 추진계획

- 평가 대상기간 : 2000. 9. 1 ~ 2002. 8. 31
- 평가 일정
 - 평가편람 확정 : 2002. 7
 - 교육청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 2002. 9
 - 서면평가 및 현장방문평가 : 2002. 10
 - 평가결과 발표 : 2002. 11

- 평가결과 활용
 - 분야별 우수교육청 발표
 - 자구노력 지원비 차등지원 : 3억원

3. 「교육정책 창안제」 운영

가. 목 적

- 교육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정책 특성화 도모
- 도내 교직원 대상 특성화 정책 공모 및 우수작 시상
- 우수 창안내용은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

나. 추진계획

- 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 : 2002. 3월
- 창안의 범위 : 충북교육정책의 특성화를 지향할 수 있는 내용
- 제안자의 자격 : 도내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 공모기한 : 2002. 6. 30.
- 심사 및 표창 : 2002. 10월중
- 우수창안 채택 파급 : 2002. 11월

4.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초·중·고 학생수용계획 수립

가. 목 적

- 급당 학생수 하향조정을 통한 OECD 국가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 제7차 교육과정의 목표 구현

나. 추진계획

○ 2003~2004학년도 초·중·고 학생수용계획 변경 및 2005학년도 계획 수립

구 분			급 당 지 표	학급수 (예정)
2002	초	전교생	시지역 41명, 기타지역 39명	4,066 (증 170)
	중	신입생 2학년 3학년	시지역 39명, 기타지역 37명(단설학급은 39명) 시지역 41명, 기타지역 39명(단설학급은 41명) 시지역 43명, 기타지역 41명(단설학급은 43명)	1,579 (증 25)
	고	전교생	35명(단, 실업고 2~3학년의 경우 청주·청원지역 40명, 기타지역 39명)	1,657 (증 100)
2003	초	전교생	35명	4,632 (증 566)
	중	전교생	35명	1,803 (증 224)
	고	전교생	35명(단, 실업고 3학년의 경우 청주·청원지역 40명, 기타지역 39명)	1,664 (감 7)
2004 이후	초	전교생	35명	4,635 (증 3)
	중	전교생	35명	1,842 (증 39)
	고	전교생	35명	1,660 (감 4)

○ 학교신설

개 교 (예정)년도	학교 급별	지 역	학교명(가칭)	학급규모 (완성학급)	비 고
2002. 3	초	청 주	개 신 초	36	개신택지개발지구
2002. 9	"	"	동 주 초	36	용암2택지개발지구
소 계			2교		
2003. 3	초	제 천	장 락 초	36	제천 장락동
2003. 9	"	청 주	지 암 초	36	용암2택지개발지구
2003. 3	중	충 주	탄 금 중	30	충주 금릉동
"	"	"	호 암 중	36	충주 칠금동

개 교 (예정)년도	학교 급별	지 역	학교명(가칭)	학급규모 (완성학급)	비 고
2003. 3	중	청 주	분 평 중	36	분평지구
"	"	청 주	죽 립 중	36	가경4택지개발지구
"	"	제 천	제천북중	24	제천 신백동
"	고	청 주	복 대 고	30	하복대택지개발지구
"	"	"	가 경 고	30	가경4택지개발지구
"	"	"	용 암 고	30	용암2택지개발지구
소 계	초 중 고		2교 5교 3교		
	계		10교		
2004. 3	초	청 주	신 봉 초	36	청주 봉명신봉토지구획정리지구
		"	성 화 초	36	가경4택지개발지구
		"	사 천 초	30	사천동 일원
		"	울 봉 초	24	주중동
		충 주	금 룡 초	36	충주 금룡동
		제 천	내 토 초	24	제천 신백동
소 계			6교		
합 계			18교		

○ 학급증설을 위한 교실증축 실적 및 계획

급 별	연도별	실 수	비 고
고	2001	89	- 건축공사 추진중
초 중	2002	235	-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중
	"	125	-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중
계		449	

5. 소규모학교 개편

가. 목 적

- 농촌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교육과정 정상화 도모
- 교육재정 및 인원의 효율화 도모

나. 추진계획

- 소규모학교 통·폐합
 - 추진기준
 - 본교 학생수 100명 이하, 분교장 학생수 20명 이하교 대상
 - 1면 1본교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및 주민의견 고려 탄력적 추진
 - 추진일 : 2002. 3 1
 - 통·폐합 추진 8교
 - 본교폐지 1교(영동 노송초)
 - 분교장폐지 4교(보은 탄부초사직분교장, 내북초아곡분교장, 산외초장갑분교장, 진천 구정초오상부교장)
 - 분교장개편 3교(옥천 능월초, 괴산 의사초, 덕평초)

6. 교육재정 및 학교회계의 효율적 운영

가. 목 적

-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 재정 운영

나. 추진계획

- 교육재정 효율화계획 지속 추진
- 교육여건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재정 지원
- 학교예산 편성·심의에 학교구성원의 참여 및 다양한 의견 수렴
- 학교예산 배분방법 및 제도 개선방안 지속 연구

7. 교원업무경감 10대 방안 적극 추진

가. 목 적

- 교원업무경감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여 공교육의 내실화 정립

나. 추진계획 (10대 방안)

- 공문서 감축
 - 보고사무 일몰제 추진, 공문서 시행방법 개선, 보고사무 편람 제작 보급
- 교무보조인력 배치 등 근무여건 개선
 - 교무보조인력 배치 : 2002년도 40%(172교)배치, 2005년까지 전학교 배치
- 장학지도 및 평가제도 개선
 - 평가주기 조정, 장학지도와 연계한 학교평가 실시
- 연구·시범학교 운영 축소
 - 유사영역 통합 축소, 결과보고회 통합 및 간소화
- 각종행사 및 회의 감축
 - 각종대회·행사의 축소, 교사대상 행사 및 회의 억제
- 학교장부 대폭 감축
 - 학교장부 통·폐합 정비, 폐지된 장부 및 보조장부 요구 금지

- 소규모학교 행정지원 강화
 - 행정직·교무보조원 배치, 기간제 교사 배치 억제, 교육청 통합관리 업무 발굴
- 학교행정의 능률성 제고 및 자율권 확대
 - 위임전결제도의 확대 시행, 업무분장의 합리적 조정, 교무실·행정실간 업무조정
- 「공문서 리콜제」 시행
 - 불합리한 공문 리콜 요구시 회수 조치
- 교원업무경감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전문직, 교원, 행정직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업무경감 방안 발굴

8. 「일하는 방식」 개선 10대 추진과제 실천

가. 목 적

-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합되는 행정경쟁력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
- 「일하는 방식」 의식·행태의 개선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전략 제시

나. 추진계획(10대과제)

- 전자결재 활성화 및 확대시행
- 회전식 비대면 결재
- 위임전결의 준수 및 권한위임의 지속적 하향추진
- 회의의 최소화 및 보고의 간소화
-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및 적극활용
- 불필요한 공문서 생산 줄이기
- 신문스크랩 전자게시판 게시
- 전직원 명함 및 E-mail 갖기
- 근무밀도 강화를 위한 「집중근무시간제」 운영
- 홈페이지를 이용한 설문조사

학교운영지원과

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가. 목 적

- 단위학교의 교육자치 활성화
- 학교공동체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학교교육 촉구

나. 추진계획

- 회의 운영의 활성화 방안 모색
-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활동 강화
- 학교운영위원회 홍보 및 행정지도 지속적 실시

2.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내실화

가. 목 적

-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학에 재정결함액을 지원하여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

나. 추진계획

- 재정결함보조금액 : 672억원
- 보조대상학교수 : 47개교(중19교, 고21교, 특수7교)
- 보조기준 :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부족될 때 그 부족액 지원

3. 물품구매 단가결정 및 일괄구매 입찰 지속 추진

가. 목 적

- 일선 교육현장의 부조리 근절 및 교육현장에 대한 신뢰회복과 교권 확보
- 최첨단 교재·교육 및 양질의 물품을 적정가격으로 구매

나. 추진계획

- 물품구매 단가결정 및 일괄구매 입찰 지속 추진
- 본청에서 일괄 추진하되 일부 품목은 지역교육청별로 입찰 추진
- 단가결정 입찰 품목을 선정, 계획 수립

4. 스쿨뱅킹제 도입 정착

가. 목 적

- 공납금 수납업무의 전산관리체계 구축으로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성 제고
- 지로이용수수료 부과에 따른 세입결손 방지

나. 추진계획

- 스쿨뱅킹제 도입 적극 권장
 -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교육금고를 통해 스쿨뱅킹제의 편리성 홍보
 - 각종 회의 또는 지도방문시 도입 적극 권장
 - 학교 단위별로 자체세부계획 수립 후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시·읍지역 학교는 상반기에 완전 정착토록 적극 추진

5. 자체수입의 증대

가. 목 적

- 자체 세입재원 증대로 지방교육재정 확충

나. 추진계획

- 자체 세입재원 발굴
- 교특자금의 효율적 관리
 - 본청 및 지역교육청 자금의 통합관리
 - 학교운영비 분할 송금으로 각급학교 보유자금 최소화

- 주간 소요자금 파악하여 유휴자금 예치
- 보통예금 잔액을 7천만원 이하로 관리

○ 이자수입 목표

- 연간 이자수입 목표액 : 50억원

6.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가. 목 적

-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 균등 보장
-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나. 추진계획

-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분기별 지원인원 : 31,000명
 - 연간지원액(국고) : 93억 4,200만원

7.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

가. 목 적

- 폐교의 교육적 활용 및 지역주민 복지를 위한 활용촉진 등 건전한 용도로의 활용 추진

나. 추진계획

- 미활용 폐교재산의 인터넷 탑재, 우수활용 폐교의 일간신문 광고게재 등 적극 홍보
- 유아·청소년·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청소년 수련시설·도서관·박물관 등의 용도로 활용시 수의계약에 의거 임대 또는 매각 추진

시 설 과

1. 교육환경개선사업

가. 목 적

- 노후시설개선, 교원편의시설 확충,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나. 추진계획

- 2002년도 투자계획(예산액 405억 2,967만원)
 - 교원편의실 확충 23실
 - 교실증·개축 27실
 - 난방시설개선 2,504실
 - 화장실개선 124실
 - 책걸상 및 사물함 53,180조
 - 조도개선 1,301실
 - 여학생탈의실확충 86실

2. 학교시설의 다양화·유연화

가. 목 적

-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다양한 교실확보

나. 추진계획

- 2002년도 투자계획(예산액 150억 5,257만원)
 - 초등학교 16교
 - 중 학교 12교
 - 고등학교 14교

3. 서해수련원신축공사

가. 목 적

- 학생 및 교직원수련활동의 장으로 참되고 진취적인 인재육성

나. 추진계획

- 2002년도 추진계획(총예산액 115억 2,910만원)

- 공사착공 2002.3월
- 공사추진예정공정 전체공정대비 70%
- 공사규모 지하1층,지상5층
- 연면적 8,551㎡
- 수용인원 460명(학생및교직원)

서 면 답 변 서

1. 2001년도 지역교육청 감사결과 내용(조일환 위원)
2. 정계양정의 형평성이 요구되는데 의견은?(조일환 위원)
3. 초등학교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방안(김광수 위원)
4.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김광수 위원)
5. 연구학교의 과다문제(김광수 위원)

질 의 · 답 변

위 원 : 조 일 환

소관과 : 공보감사담당관실

질 의

1. 2001년도 지역교육청 감사결과 내용은?

답 변

- 2001년도 종합감사를 실시한 교육청은 영동, 충주, 청원교육청이며,
- 감사결과 내용은 요약하여 붙임과 같습니다.

영동교육청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제 목	지 적 내 용
○ 자연과 실험연수 실기평가 소홀	초등교사 자연과 실험연수 계획에 의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요구되는데 실기평가 과정에서 평가 척도표에 명시된 분야별 3단계 수행평가를 근거자료 제시없이 일괄하여 통합 점수로 평가 처리
○ 교원 복무관리 소홀	영동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서는 교원 복무관리를 하면서 공휴일을 제외하고 병가처리
○ 학습 준비물 지원업무 소홀	'99.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업무를 추진함에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집행을 '99년 6월이나 납품되도록 추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
○ 학생 사물함 구입 예산 배부 소홀	2000. 초·중 학생용 사물함 구입 예산을 학교에 배부하면서 필요한 학교에는 배부치 않으면서 일부학교에는 필요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부하는 등 예산 배부 소홀
○ 계약업무 집행 소홀	경쟁입찰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을시 성립이 되는데도 2인이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그 중 1인이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부족하여 유효한 입찰이 될 수 없음에도 유효한 입찰로 봄
○ 공무원수당 과다 수혜 및 지급 소홀	부양가족수당 과다 수혜 및 의병휴직 교사에게 교직수당 착오 지급
○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집행관리 부적정	사용하지 아니한 표준안전관리비에 대한 공사대가 지급시 감액 또는 반환을 요구하지 않음
○ 시설공사 과다 설계 및 부족 시공	교사증축공사에서 유리기름코킹폼 중복 계산하여 671,000원 과다 설계하였고, 창문틀 주위코킹시 90.6m 부족 시공한 사실

충주교육청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제 목 및 지 적 내 용
<p>○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소홀</p> <p>2000년도 11개 초등교과교육연구회 조직·운영시 각 연구회당 410천원을 지원 연구회 활동 활성화 및 자료를 제작·보급하여 교과교육의 충실을 기하여야 함에도 사회교과 외 2개 연구회는 그 활동이 부진하고 지원금의 집행내역이 불합리하여 그 활동 결과에 따라 추후 지도가 필요하였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p>
<p>○ 교원인사 업무 소홀</p> <p>교사 전보 발령시 전보조서에 의거 작성된 전보순위 내신자 명부에 의거 인사발령 대상자 임에도 발령을 하지 않고 있다가 동년 9. 1자로 발령 신규교사 발령시 제규정에 의하지 않고 자체발령기준을 정하였으나 동 기준에도 맞지 않게 인사발령(임용)</p>
<p>○ 예산관리 업무 소홀</p> <p>학교 소각로 설치를 억제토록 하였음에도, 2000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자체 특색사업으로 선정, 3개교(1교당 26,000천원)에 환경오염방지시설비(소각로 설치)로 78,000천원을 2000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배부·설치토록 함</p>
<p>○ 물품구매 업무 소홀</p> <p>학교시설공사에 따른 수배전반 제조·구매시 저가입찰에 따른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일반경쟁입찰을 실시치 않고 총 10회에 걸쳐 전량 조달구매하여 5,637,360원의 조달수수료 지출로 최소한 5,637,360원의 예산을 절감치 못한 결과 초래</p>
<p>○ 시설공사 분할 수의계약</p> <p>시설공사(추정가격 : 117,860천원) 집행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급수대 설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5개부문 공사는 건축공사로(추정가격 : 91,770천원), 급수대 설치공사(추정가격 : 13,030천원)를 설비공사에 포함 설계·발주하여(추정가격 : 26,090천원) 분할 수의계약</p>
<p>○ 시설공사 시공 소홀</p> <p>천장교체 및 기타 전기공사에서 당초 설계된 슬립형 조명기구에서 매입 개방형 조명기구로 변경 시공되어 자재비 891천원이 잘못 시공</p>

재 목 및 지 적 내 용

○ 시설공사 부족 시공

지붕방수공사(계약금액 : 15,000천원)시 우레탄방수 426.6㎡의 두께는 3mm로 설계되어 있으나 1.5~2.0mm로 시공

○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적용 및 정산 소홀

직원화장실개선공사에서 공사금액이 32,602천원인데도 안전관리비를 적용하여 867,000원을 과다계상
천정설치공사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안전관리비 609,400원을 공사대가 지급시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음

○ 자녀학비보조수당 부당 수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허위 제출

교사 ○○○은 1997.2.28. 자녀 ○○○가 본인 사정으로 1998. 10. 20. 2학년 재학중 자퇴하여 취학사항에 변동이 생겨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 받을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변동신고서를 제출치 않고, '98. 4/4, '99. 1/4~4/4분기에 걸쳐 886,200원을 부당으로 수혜 받았고,

1999. 12. 18.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제출시 위 자녀는 1999년도 중 ○○○학교에 대한 교육비 납부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1999. 3. 17. 1/4분기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179,700원 등 4회에 걸쳐 718,800원을 납부한 것처럼 ○○○학교장을 명의로 허위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작성한 후, 제3자가 식별키 어렵도록 ○○○초등학교장 직인을 비틀어 날인하여 충청북도충주교육청에 제출, 1999년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음

○ 공무원 보수 지급 소홀 및 가족수당 과다 수혜

각종수당 지급시 질병휴직 후 복직자에게 정근수당으로 114,460원 착오 지급 및 주민등록표상 지급요건이 아닌자(부·모)에게 가족수당 789,660원을 지급하였으며,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교사에게 260,000원을 과다 수혜

청원교육청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제 목 및 지 적 내 용
<p>○ 과학실험 자율연수 업무처리 소홀</p> <p>초·중교사 과학실험 자율연수 희망자 명단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출시 초등학교 교사를 중학교 교사로 잘못 보고하여 3명 전원이 연수를 포기하는 결과 초래</p>
<p>○ 초등교원 인사관리 소홀</p> <p>전입교원 임지지정시 타 시·군 전입자를 '나'급지로 임지지정하면서 타 시·도 전입자를 '가'급지로 임지지정</p> <p>신규교사는 제 규정에 의거 도서·벽지로 지정된 학교에 배치하지 않아야 함에도 도서·벽지 '라'지역에 배치</p>
<p>○ 시설예산 집행 소홀</p> <p>'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99.12.24)에 편성된 교실바닥보수(41실분) 예산 180,400천원을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2000년도로 명시이월 등 예산이 2000. 1. 24. 배정통지 되었음에도 7개교분 118,800천원에 대하여는 2000. 12. 16. 배부계획을 수립, 2000. 12. 18에야 해당학교로 배부하여 동절기에 교실마루바닥 공사를 하게 함</p>
<p>○ 예산운용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p> <p>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소재 교육장관사 수선시 대장가격을 초과하는 수선비가 예상될 경우에는 투자가치 등을 고려, 전면 개·보수하는 방안과 매각후 새로운 관사(아파트 등)를 매입하는 방안 등을 심층 분석하여 예산 투자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집행했어야 타당함에도, 이러한 분석과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수선공사를 실시</p>
<p>○ 예산집행 부적정</p> <p>추경예산에 편성된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공사의 설계용역기간(60일)과 계약집행(입찰 집행 등) 소요일수 등을 감안할 때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되었음에도 이를 명시이월치 않고, 사고이월 조치</p>

제 목 및 지 적 내 용

○ 시설공사 과다 설계

교사증·개축공사 집행시 유리공사중 유리끼우기 코킹폼은 유리끼우기 폼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407,000원을 중복 계상

유치원사 및 교사증축공사 집행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583,000원을 중복 계상하여 과다 설계

○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정산 소홀

교사증축공사시 과다정산된 안전관리비 1,692,000원을 공사대가 지급시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음

신축공사시 목적외 사용(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한 안전관리비 730,000원을 감액정산하지 않음

교실·화장실 증축 및 보수공사시 사용하지 아니한 안전관리비 761,000원을 감액 또는 반환을 요구하지 않음

○ 전기공사 집행관리 소홀

교사증축및난방개선허전기공사시 조명기구와 도면은 매입개방형, 내역은 슬림 개방형으로 상이한데도 이를 조정하지 않고 도면대로 시공됨으로써 내역대비 1,034,000원이 잘못 시공

교사증축전기공사시 공사 여건상 불필요하다는 사유로 미시공된 자재(조류피해방지기, 통전표시기)를 감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517,000원이 부당 집행

○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소홀 및 과다 수혜

교직원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시 지급요건이 아닌 주민등록표상 비동거자(모)의 가족수당으로 780,000원을 착오 지급하였고, 부양가족(시부, 시모, 부, 모)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이를 신고치 않아 1,840,000원을 과다 수혜

질 의 · 답 변

위 원 : 조 일 환

소관과 : 공보감사담당관실

질 의

2. 징계양정의 형평성이 요구되는데 의견은?

답 변

- 감사결과 처분에 있어 처분양정은 기관의 실정,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의 처분하고 있으며, 처분양정을 정할시 동일 사안은 가급적 동일한 처분이 되도록 처분의 형평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질 의 · 답 변

위 원 : 김 광 수 위원

소관과 : 초등교육과

질 의

3. 초등학교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방안

답 변

○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방안으로

- 특기·적성 교육활동 활성화로 학원 과외 활동을 적극 교내로 흡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초등학교 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습준비물 지원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 교실 수업 방법 개선 및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통해 공교육의 우수성을 확립하여 학원 과외를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질 의 · 답 변

위 원 : 김 광 수

소관과 : 중등교육과

질 의

4.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은?

답 변

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교육활동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 학생의 폭력과 같은 부적응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기본 생활 습관 형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 함양을 위해 이미 개발한 ‘밥상머리 교육’ 및 ‘전통예절의 올바른 계승’ 등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와 가정을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고,
-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예방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폭력예방 및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 부적응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1공무원 1학생 결연으로 가정·학교·사회와의 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 전교사의 상담교사화로 개별상담을 강화하고,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상담활동의 내실화, 심성수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 교외생활지도 상설 캠프를 설치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 순회 지도,
- 학생지킴이제 운영 및 학생 자율선도반 등을 운영하여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 사이버 공간상의 음란물 차단 및 건전 사이트, 유용한 학습 정보 등을 학생, 학부모, 사회에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 교육청 홈페이지 및 신고·상담 전화를 개설하여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예방을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신고 및 보호를 위한 각급 학교별 안전망을 구축하고, 집단 괴롭힘 사안은 익명의 신고라도 밀착 조사 처리하고 있으며,
 - 사안 발생 시 처리전담제(장학사, 교사)를 운영하여 사안 처리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처하며,
 - 학교, 지방자치단체, 경찰·검찰, 지역인사 등 유관기관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 한마음축제 및 학생문화거리축제 운영으로 비행예방과 건전한 학생 문화 정착에 힘쓰는 등,
- 금년에는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 의 · 답 변

위 원 : 김 광 수 위원

소관과 : 초등교육과

질 의

5. 연구학교의 과다문제는?

답 변

- 연구학교의 지정은
 - 교육부 및 도교육청의 정책과제를 연구영역으로 설정하고
 - 지역교육청별로 총학교수에 비례하여 연구학교를 공모하였으며
- 연구학교 수는
 - 2001학년도 연구학교가 총102개교에서
 - 2002. 1. 17현재 79개교로 감축하였으나
 - 우리 도의 특수시책인 『기본학력 확인제』 시범학교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적정수의 연구학교를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경예산 편성 개요

충 청 북 도 교 육 청

2001년도 제3-1회 추경예산 편성 개요

1. 예산총액

(단위: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963,642,371	972,310,405	△8,668,034	감0.89%

2. 예산편성내역

(단위:천원)

사 업 명	세 입	세 출	예비비	비 고
○ 지식정보화 사회의 학교 모형기준 및 연구학교 운영	182,966	0	182,966	· 미원초
○ 미원초·중·공업고 다목적 교실 신축	974,000	0	974,000	· 규모 :1,176㎡
○ 감곡중 다목적교실 신축	671,000	0	671,000	· 규모 : 810㎡
○ 증평도서관 증축(3층)	444,000	0	444,000	· 규모 : 633㎡
○ 한일중 다목적교실 신축	671,000	0	671,000	· 규모 : 810㎡
○ 서원초 다목적교실 신축	800,000	0	800,000	· 규모 : 966㎡
○ 삼성중 특별교실 증축(3실)	296,000	0	296,000	· 규모 : 396㎡
○ 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12,707,000	0	△12,707,000	· 실업계고분 조정
합 계	△8,668,034		△8,668,034	

3. 사 유:

- 교육인적자원부 교재81440-677(2001. 12. 21.) 지식정보화 사회의 학교 모형기준 및 연구학교운영비 182,966천원, 교재81440-691(2001. 12. 26.) 미원초·중·공업고 다목적교실 신축 등 6건 특별교부금 3,856,000천원이 교부되었으나 사업시기 부족으로 예비비에 편성한 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며,
- 교재45160-694(2001. 12. 27.)7. 20. 교육여건개선계획에 의한 실업계고 교실 증축비가 조정 교부되어 예비비에서 감액조정 하였음.

4. 근 거 : 예산총칙 제9조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정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